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승 록

2020년 8월

제주지역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 관 우

정 승 록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정승록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0년 8월

The Effects of SNS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on Jeju Island on Addiction Tendency
: Focus on the Ease of Social Support

Seung-Rok 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Kwan-Woo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0 . 8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국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5
2. SNS 이용동기 9
3. SNS중독경향성 13
4. 사회적 지지 17
5. 선행연구 고찰 20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7
2. 연구모형 및 가설 28
3. 측정도구 30
4. 자료분석방법 36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SNS사용 특성 37
2. 주요 요인들의 기술통계 38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39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48
5. SNS 이용동기,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51

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58
7. 가설검증 요약	107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및 논의	112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8
설문지	131

<표 목차>

<표 1> SNS의 분류 및 정의	5
<표 2> SNS의 특성	7
<표 3> 소셜미디어의 특성	8
<표 4> SNS 이용동기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12
<표 5>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의 정의	14
<표 6> SNS중독경향성 척도 정리	16
<표 7> 사회적 지지요인의 구분	20
<표 8>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23
<표 9>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26
<표 10>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
<표 11> SNS 이용동기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0
<표 12> SNS중독경향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31
<표 13>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32
<표 14>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SNS사용 특성	36
<표 15> 주요 요인의 기술통계	38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동기의 차이분석	39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현실회피 동기의 차이분석	40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획득 동기의 차이분석	41
<표 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오락성 동기의 차이분석	42
<표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집착 및 금단증상 차이분석	43
<표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과잉소통 및 몰입 차이분석	44
<표 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과도한 시간소비 차이분석	45
<표 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차이분석	46
<표 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지지 차이분석	47
<표 2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요 타인지지 차이분석	47
<표 26>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50
<표 27>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	52

<표 28>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	53
<표 29>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54
<표 30>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	55
<표 31>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	56
<표 32>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57
<표 33>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58
<표 34>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60
<표 35>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61
<표 36>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62
<표 37>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64
<표 38>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65
<표 39>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66
<표 40>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68
<표 41>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69
<표 42>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70
<표 43>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72
<표 44>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73
<표 45>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74
<표 46>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76
<표 47>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77
<표 48>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78
<표 49>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80
<표 50>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81
<표 51> 정보획득과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82
<표 52> 정보획득과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84
<표 53> 정보획득과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85
<표 54> 오락성과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86
<표 55> 오락성과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88
<표 56> 오락성과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89

<표 57> 대인관계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90
<표 58> 대인관계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92
<표 59> 대인관계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93
<표 60> 현실회피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94
<표 61> 현실회피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96
<표 62> 현실회피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97
<표 63> 정보획득과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98
<표 64> 정보획득과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100
<표 65> 정보획득과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101
<표 66> 오락성과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102
<표 67> 오락성과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104
<표 68> 오락성과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105
<표 69>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검증	107
<표 70>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검증	108
<표 71> SNS 이용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설검증	109
<표 72> SNS 이용동기가 SN과잉소통 및 몰입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설검증	110
<표 73> SNS 이용동기가 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설검증	11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28
-------------	----

국문초록

제주지역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 승 록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고 관 우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각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02명에게 수집된 인터넷 설문과 지면 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SNS 이용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SNS중독경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18.0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하위요인 간의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 현실회피는 학년, 정보획득은 대학유형, 오락성은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 SNS집착 및 금단증상은 학년과 대학유형이, SNS과잉소통과 몰입, 과도한 시간소비는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모두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관계 동기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실회피 동기는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보획득 동기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오락성 동기는 SNS과잉소통 및 몰입, 과도한 시간소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지지와 중요 타인지지는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나왔다. 친구지지는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 3가지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요인 별로 분석한 결과 9가지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SNS중독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효율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가정, 지역사회에 사회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수집된 설문자료는 전체 표본집단에 비해 부족하여 일반화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모집하여야 할 것이다. 또 표본집단을 늘려 10대 청소년을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근본적인 SNS중독 예방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인해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관찰법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사회적 지지, SNS 이용동기, SNS중독경향성, 대학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인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하루의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정보검색, 음악, 게임, 쇼핑, 금융, 동영상 등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백현기·윤지원, 2014). 2019년도에 스마트폰 보유율은 92.2%로 대한민국 국민 10중 9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접속 방법으로 유선접속(81.6%)과 비교하여 무선접속(100%)으로 무선인터넷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높은 보급률은 현대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률은 63.8%로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SNS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한 ‘2019 청소년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청소년의 SNS를 이용률은 중학생(79.4%), 고등학생(82.8%), 대학생(90.9%)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이는 현대인들 대다수가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SNS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기, 동료 등 지인 및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단순히 열람, 관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SNS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자신의 일상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친구의 게시물에 댓글 또는 ‘좋아요’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표현하며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이신영, 2015).

이러한 SNS를 대학생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여 친구를 만나고, SNS공간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관심사를 공유하

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대학생들에게 SNS는 일시적인 소통수단만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의 도구이자 또래 놀이 공간이다. 하지만 SNS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증가하는 만큼, SNS의 부정적인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7%가 심각하다 느꼈다. 또한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이 19.1%로 10명 중 2명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주류로 이루고 있는 20대의 경우 24%로 가장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에 가장 위험한 20대 대학생 중 대다수가 SNS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 유지 및 사회적 지지를 위한 SNS의 사용은 SNS 이용자들이 중독경향성을 보이게 하였다(김예지, 2018). SNS중독경향성은 병리적인 중독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SNS에 대한 의존이 높아 일상과 사회생활 및 학업성취에서의 문제 발생률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오윤경, 2012). 위 선행연구를 보고 알 수 있듯이 SNS중독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SNS사용으로 성적저하, 업무 효율성 저하, 흥미실추, 대화단절, 건강이상, 수면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우공선, 2011). 20대의 대학생 시기는 길고 긴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 성인으로 시작하는 초기단계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독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SNS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고, 불명확한 정보전달,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대학생들의 SNS중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여 SNS중독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SNS 이용동기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에서 SNS 이용동기가 높으면 SNS중독경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임민희, 2014; 신미경, 2015; 홍신영, 2015; 유나·김승윤·이상민, 2016; 조진행, 2018; 한기쁨, 2018; 박경아, 2019).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SNS의 이용목적이라 할 수 있는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로 김영미(2015)는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보호, 자기 생각이 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자기 위안, 경제적 또는 물질적 도움이나 원조, 그리고 자신의 과업수행과 사고방식이 옳다는 지지 등을 받는다고 자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대학생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타인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에게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SNS중독경향성 등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보고 있다(조아미·방희정, 2003; 장지희, 2015; 홍구표, 2016; 이선민, 2016). 위 내용을 유추하면 대학생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SNS중독경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SNS 이용동기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의 영향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동기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에 따라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SNS중독경향성이 높은 대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SNS중독경향성을 낮추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후 대학생의 SNS중독에 대한 예방방안과 상담 개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제주지역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 SNS중독경향성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SNS 이용동기는 SNS중독경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는 SNS중독경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사회적 지지가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 인간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 및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SNS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예로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이 SNS를 5가지 분류 및 정의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SNS의 분류 및 정의

구분	정의
커뮤니티	웹상에서 취미 또는 관심이 있는 주제가 비슷한 사용자들이 뭉쳐 친목 도모나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
미니홈피	미니홈페이지의 준말, 본인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 및 아바타를 꾸꾸고 타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공간
블로그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신문, 전문지식,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1인 미디어
마이크로 블로그	150자 정도의 짧은 내용으로 간단한 본인의 일상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서비스로 미니블로그라고도 함
프로필 기반 서비스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직접 게시한 콘텐츠(사진, 영상 등), 인맥관계 등이 매일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교류하게 도와주는 서비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먼저 커뮤니티는 웹상에서 취미 또는 관심이 있는 주제가 비슷한 사용자들이 뭉쳐 친목 도모나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로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 카페를 들 수 있다. 미니홈피는 미니홈페이지(mini homepage)를 줄여 이르는 말로, 자신이 직접 꾸미고 타인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인맥을 형성하는 1인 미디어로써,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예로 들 수 있다. 블로그는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신문, 전문지식,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1인 미디어로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다.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는 15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유하는 블로그 서비스의 일종으로 미니블로그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는 트위터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 기반 서비스로 나이, 학력, 직업 등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사진이나 영상, 친구목록 등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 간에 인맥을 형성하고 교류하는 서비스로써,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있다.

Boyd and Ellison(2007)이 정리한 기본적인 SNS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신의 개인정보(프로필) 및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정보를 전부 공개하거나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하며, 타인과 특정 관계를 맺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이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점수와 이영곤(2012)의 선행연구에서 SNS 특성을 노출성, 위장성, 상호작용성, 이용 용이성, 개인 적응성, 오락성으로 구분하였는데 내용은<표 2>와 같다.

<표 2> SNS의 특성

구분	내용
노출성	개인의 정보가 SNS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 오픈된 공간에 노출되는 성향을 말함. SNS활성화에 이바지하지만 개인정보보안 누출사고 등 문제점이 있음.
위장성	SNS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변조하여 타인으로 위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음.
상호작용성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심인 SNS에 있어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서비스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음.
이용 용이성	특정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거나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야 함.
개인 적응성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이러한 개인적응성은 SNS활용에 있어 충성도를 높여줌.
오락성	SNS를 이용하며 느끼는 재미, 즐거움과 흥미의 정도를 말함.

출처 : 이점수 · 이영곤(2012)

먼저 노출성으로 개인의 각종 정보가 SNS의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에게나 노출되는 성향을 말한다. SNS의 노출성에 의해 서로 연결된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어, SNS활성화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개인정보보안 누출사고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장성은 자신의 정보를 변조하여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위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은폐하는 이런 특성은 SNS의 각종 부작용의 원천이 된다. 상호작용성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심인 SNS에 있어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서비스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용 용이성은 기술사용이 쉬울수록 고객을 모으기에 좋고, 고객들 또한 적극적인 의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거나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응성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적응성은 SNS활용에 있어 충성도를 높여준다. 오락성은 SNS를 이용하며 느끼는 재미, 즐거움과 흥미의 정도를 말한다.

또한 이정권과 최영(2015)은 ‘소셜미디어가 SNS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SNS와 혼용하여 사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특성 또한 SNS의 특성과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다.

김정숙과 손영우(2012)가 정의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소셜미디어의 특성

구분	내용
참여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게 하여 미디어 제공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함
공개	피드백과 참여 모두가 공개되며, 피드백, 투표, 코멘트 등을 촉진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장벽이 낮음
대화	전통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오디언스에게 유통되는 반면 소셜 미디어는 양방향성을 가짐
커뮤니티	빠르게 커뮤니티를 구성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게 함
연결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를 통한 연결 상에서 변성함

출처 : 김정숙 · 손영우(2012)

먼저 참여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피드백을 촉진하며 미디어 제공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한다. 공개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에 피드백과 참여가 공개되어 있으며, 투표, 피드백 등을 촉진함으로써 콘텐츠 접근과 사용에 대한 장벽이 낮다. 대화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통되는 반면 소셜미디어는 양방향성을 가진다. 커뮤니티는 빠르게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하고 커뮤니티로 하여금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연결은 대부분의 소셜미디어가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를 통한 연결 상에서 변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2. SNS 이용동기

동기란 심리적인 특성으로써,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실행 및 결정을 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정 행동에 대해 처음부터 지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특성이다(이홍표, 2002). 또한 백선영과 이선재(1999: 47-60)는 ‘동기가 행동에 있어 활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유기체에 동일한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여러 반응에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시적인 구성요소’라 하였다. 김명진(2019)은 동기가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이며, 행동의 강도와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기에 대해 김현주(2019)는 이용자의 소비습관과 구매의사결정, 소비형태 결정 등 광범위하게 운용된다고 말하며, 이용객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이용객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를 파악하게 되면 대학생이 SNS를 사용하는 동기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SNS사용자들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기에 이용과 충족이론의 개념과 잘 부합한다(이귀옥·박조원, 2018). 이용과 충족이론은 Katz(1973)가 제시한 이론으로 ‘매스미디어가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가?’라는 생각 대신 ‘사람이 매스미디어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시각으로 매스미디어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즉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동기를 인지하고 사용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20)은 SNS이용이유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친교·교제를 위해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취미·여가활동 등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 정보나 지식, 사건사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총 6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외 국내 SNS 이용동기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화(2012)는 이용동기를 이용시간과 이용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타인들의 피드백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SNS를 이용하는 자기 확인적 동기로 인해 SNS이용몰입에 빠져들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소식 및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과 학업·업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탐색적 이용동기로 인해 SNS이용몰입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였다.

박광순과 조명휘(2004)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웹블로그 이용동기와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용동기를 이용의 편리성/사회성, 경제성, 기록성, 자긍심/정체성표현, 학습도구, 유행성, 추억의 공유, 교제 관계/흥미, 관음주의, 습관, 상호작용성, 영상물 게재 및 감상, 현실도피 1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우공선(2011)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동기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즉시성,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관계형성,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등)처럼 150자 이내로 소통하는 단문성,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성,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쉽게 만날 수 없는 유명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명인에 대한 접근성 요인까지 총 6가지 요인으로 SNS 이용동기를 구분하였다.

심홍진과 황유선(2010)은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사회이슈 참여, 상호작용, 편리한 소통, 정보전달 용의성, 휴식과 오락, 사적 기록, 유용성 7개의 요인을 밝혔다. 오승석(2010)은 페이스북의 이용동기를 정보 탐색적 동기, 대인커뮤니케이션동기, 엔터테인먼트 동기, 자기 확인적 동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김유정(2011)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유용성, 교류, 정보검색, 여가, 인맥관리, 현실도피, 동참하기, 외로움 탈피 이상 10개의 이용동기를 제시하였다. 이(Lee, 2013)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동기를 도출한 결과 자존감 추구,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추구, 자기표현, 새로운 트렌드 6개를 제시하였다. 이희복, 김대환, 최지윤과 신명희(2014)는 청소년의 SNS이용특성과 SNS중독경향성 연구에서 자기표현, 정보활용, 관계 및 소통, 시간보내기 4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박지영(2014)은 정보탐색, 자기확인, 엔터테인먼트, 대인관계 유지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박진우와 김덕중(2014)은 정보교류, 관계 맺기, 자기표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은정, 김원희와 이동형(2014)은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4개의 동기를 추출하였고, 홍수정(2014)은

대인관계추구, 지위추구, 정보추구, 오락추구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용동기를 구분하여 설명했다. 이지영, 신재권과 이상우(2015)는 카카오토티로 사용자를 조사분석하여 오락성, 유행성, 자기표현, 정보성, 지인과의 상시접속, 새로운 관계성 6개의 이용동기를 확인했다. 노영(2016)은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기표현, 정보활용, 소통, 시간보내기 4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귀옥과 박조원(2018)은 이용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자기표현, 일상탈출, 정보추구, 관계유지, 자존감 추구, 오락추구 6개 동기를 추출하였다. 오은혜, 이정화와 이정애(2019)는 이용·충족이론에 근거하여 주요한 SNS 이용동기를 사회형, 정보형, 유희형 3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 선행연구를 보면 의사소통, 단순여가, 정보공유 등을 하고자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명아, 2007; 최영·박성현 2011; 최도순, 2012; 최정화, 2012; 김경은, 2013). 이는 매년 한국정보화진흥원(2020)에서 조사하는 SNS이용 이유와 비슷한데, 조사결과 친교·교제, 취미·여가 등 개인적 관심사 공유, 일상생활기록, 정보 및 지식공유를 주된 이유로 답하였다.

국외의 선행연구 사례를 보면 Barker(2009)는 SNS 이용동기를 연구하여 자존, 오락, 시간보내기, 배움, 사회적 보상 5개의 이용동기 요인을 확인하였다. Soto, R. L. Almarza and Wilkinson(2016)는 관계유지, 오락, 안전으로 스마트폰 이용동기를 구분하였다. Papacharissi and Mendelson(2011)은 표현추구, 습관적 시간 보내기, 새로운 트렌드추구, 동료애, 실용, 도피, 사회관계, 사람만나기 이상 9개 요인으로 페이스북 이용동기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조사해본 결과 대체로 대인관계, 정보추구, 오락성, 도피 등을 중요 SNS 이용동기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또래친구를 포함 타인에게 지지받거나 인정받기 위한 목적인 대인관계, 혼자 있는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전화하거나,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현실회피, 본인에게 유효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정보획득, 마지막으로 잉여시간이나 여가를 보내거나, 단순 흥미와 재미를 위해 SNS를 이용하는 오락성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정은정·김원희·이동형, 2014)를 사용하여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표 4> SNS 이용동기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구분	분석 SNS	이용동기
박광순 · 조명휘(2004)	웹블로그	용의 편리성/사회성, 경제성, 기록성, 자긍심/ 정체성표현, 학습도구, 유행성, 추억의 공유, 교제 관계/흥미, 관음주의, 습관, 상호작용성, 영상물 게재 및 감상, 현실도피
심홍진 · 황유선(2010)	트위터	사회이슈 참여, 상호작용, 편리한 소통, 정보전달 용의성, 휴식과 오락, 사적기록, 유용성
오승석(2010)	페이스북	탐색적 동기,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 엔터테인먼트 동기, 자기 확인적 동기
김유정(2011)	페이스북	정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유용성, 교류, 정보검색, 여가, 인맥관리, 현실도피, 동참하기, 외로움 탈피
우공선(2011)	트위터	커뮤니케이션, 즉시성, 관계형성, 단문성, 정보성, 유명인에 대한 접근성
Lee(2013)	페이스북	자존감 추구,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추구, 자기표현, 새로운 트렌드
이희복 외(2014)	다중	자기표현, 정보활용, 관계 및 소통, 시간보내기
박지영(2014)	페이스북	정보탐색, 자기확인, 엔터테인먼트, 대인관계
박진우 · 김덕중(2014)	다중	정보교류, 관계 맺기, 자기표현
정은정 외(2014)	다중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홍수정(2014)	다중	대인관계추구, 지위추구, 정보추구, 오락추구
이지영 외(2015)	카카오 스토리	오락성, 유행성, 자기표현, 정보성, 지인과의 상시접속, 새로운 관계성
노영(2016)	페이스북	자기표현, 정보활용, 소통, 시간보내기
이귀옥 · 박조원(2018)	다중	자기표현, 일상탈출, 정보추구, 관계유지, 자존감 추구, 오락추구
오은혜 외(2019)	다중	사회형, 정보형, 유희형
Barker(2009)	다중	자존, 오락, 시간보내기, 배움, 사회적 보상
Soto, R. L. and Wilkinson(2016)	스마트폰	관계유지, 오락, 안적
Papacharissi and Mendelson(2011)	페이스북	표현추구, 습관적 시간보내기, 새로운 트렌드 추구, 동료애, 실용, 도피, 사회관계, 사람만나기

3. SNS중독경향성

중독이란 일종의 물질 의존적 형상으로 특정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의존하는 증상이다(Kranzler and Li, 2008). 김성향(2010)은 중독을 ‘인간의 욕구와 자유를 제한하는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모은 행동’이라 말한다. 정희진(2014)은 중독이란 어떠한 행동 및 행위를 조절하고자 하지만 조절하지 못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피해가 생기게 되고, 삶의 균형이 망가진 상태를 말한다. 현재 중독의 개념은 담배, 약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비화학, 비독성인 정보기술 중독까지 포함한다. 이는 약물중독처럼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건강 이상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게임중독을 들 수 있다(노영, 2016).

Young(2004)은 인터넷 중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중독의 특성으로 의존하는 물질의 이전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용량을 늘려야 하는 내성과 물질이 갑자기 단절되면 발생하는 금단현상(APA, 2000)에 의한 것이다.

Goldberg(1996)는 “최초로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DSM의 물질 중독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 역시 집착, 기분 변화, 내성, 금단, 갈등, 재발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Young(1996)도 DSM-VI의 병리적 도박의 진단기준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 내성과 금단, 의도한 것 이상의 과도한 사용, 지속적인 욕구, 다른 활동에서의 흥미 감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무지 등”을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으로 하였다.

Griffiths(1998: 248-250)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약물만이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며, 행동적 중독의 한 측면으로 기술적 중독을 설명하였다. 기술적 중독에는 도박, 과식, 성행위, 운동, TV 및 컴퓨터 게임 등 인간의 모든 행동이 중독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인터넷 중독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Greenfield(2000)은 “인터넷 중독이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 단지 ‘중독’이라는 같은 질병의 새로운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즐겁고 또 강렬한 많은 것에 중독되며 인터넷은 운동이나 마약과 같이 일시적인 흥분, 기분의 고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동영상, 글,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며,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주는 중독성은 상당한 것으로 본다.

정소영(2014)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의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표 5>와 같다.

<표 5>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의 정의

기준	정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과 관련된 생각에 빠져 사는 것, 사용시간에 대한 내성강화, 인터넷 관련 통제의 반복적 실패, 금단증상, 일상생활 문제, 거짓말, 회피를 위한 인터넷 사용(Young, 1996)
스마트폰 중독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과도하면서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의존적으로 사용(신연섭, 2012)
SNS중독	SNS를 과다 사용함에 따른 금단증상과 내성이 생기고, 그의 부작용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일상이 망가지는 것

출처 : 정소영(2014)

SNS중독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되고 있다. SNS중독이라 명명하는 선행연구(박웅기, 2013; 유현숙, 2013; 노미진·장성희, 2016; 신혜선·윤석희, 2017; 김명진, 2019)가 있고, SNS중독적 성향(강현욱, 2013; 윤명숙·박완경, 2014)을 사용하는 연구가 있다. 정소영 외(2014)는 ‘SNS 대인관계에 집착’하여 금단 및 내성이 발생하여, 일상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SNS중독이라 정의하였지만,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중독경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SNS중독경향성을 사용하는 선행연구(오윤경, 2012; 서경현·조성현, 2013; 임민희, 2014; 정소영·김종남, 2014; 박나리, 2015; 신미경, 2015; 이신영, 2015; 장지희, 2015; 홍신영, 2015; 성요안나·현명호, 2016; 유나 외, 2016; 이선민, 2016; 이영미, 2016; 홍구표, 2016; 김나현, 2017; 유경자, 2017; 김예지, 2018; 김은애, 2018; 조진행, 2018; 한기쁨, 2018; 고민정, 2019; 김진숙 외, 2019; 박경아, 2019; 배

찬욱, 2020; 안지은 외, 2020)가 가장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SNS중독경향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SNS중독경향성은 가장 큰 SNS의 단점으로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야기하여 개인에게 일상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조윤희, 2016). 먼저 신체적 건강을 위협을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8년에 조사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 중 85.7%가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SNS가 71%로 가장 높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목, 어깨, 손가락 등 근골격계 통증 발생시킨다는 것은 선행연구(김양곤 외, 2013; 엄수현 외, 2013 황룡 외, 2013)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신적 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데, 황경혜, 유양숙과 조옥희(2012)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상태불안, 특성불안 및 우울은 모두 중독 사용군이 정상사용군보다 높다’고 하였다. 서거(2013)는 ‘SNS의 중독적 사용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저하시켜 사회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오윤경(2012)은 ‘현실세계에서의 의사소통 단절 및 소외를 경험하고 우울과 외로움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SNS중독경향성의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호(2013)는 SNS중독과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면서 시간적 내성, 생활장애, 중단 시도 실패, 금단 및 불안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희복, 김대환, 최지윤 그리고 신명희(2014)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활용하여 강박, 생활장애, 집착 3가지 요인으로 연구하였다. 신성만, 김재영과 리영안(2016)은 국외에서 개발된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국내실정에 맞게 번안, 타당화하여 현저성, 내성, 기분변화, 재발, 금단, 갈등 6가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SNS중독에 대한 연구가 시작한 기간이 길지가 않아 척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척도가 연구되지 않았다.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척도는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서경현과 조성현(2013)은 오윤경(2013)이 개발한 척도 11문항을 전문가와 함께 9문항을 추가하여 개발한 ‘SNS중독경향성’ 척도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3가지 요인은 SNS 집착 및 금단중

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다양한 선행연구(이선민, 2016; 홍구표, 2016; 김나현, 2018; 김은애, 2018; 한기쁨, 2018; 고민정, 2019; 박경아, 2019; 이수정, 2019; 홍은택, 2020)에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정소영과 김종남(2014)의 ‘대학생용 SNS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는 개발한 척도이다. SNS활동과 관련하여 생활 및 학업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7문항’, SNS많은 시간을 보내고, 의도한 시간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되는 ‘몰입 및 내성 7문항’이 있다. 그리고 무력감이나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부정정서의 회피5문항’, 현실보다 SNS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경향성과 SNS가 단절 되었을 때의 불쾌감을 측정하기 위한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이신영, 2014; 홍신영, 2015; 성요안나·현명호, 2016; 유나 외, 2016; 조윤희, 2016; 배나령·강정석, 2018; 이귀옥·박조원, 2018; 권지영, 2019; 배찬욱, 2020:). SNS중독경향성 관련 척도를 종합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SNS중독경향성 척도 정리

연구자	척도명	연구대상	분석 SNS	하위요인
이상호(2013)	한국형 SNS 중독지수 (KSAI)	페이스북 가입자	페이스북	내성, 생활장애, 중단 시도 실패, 금단 및 불안
조성현·서경현(2013)	SNS중독 경향성 척도	대학생	다중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과도한 시간소비
이희복 외(2014)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중학생	다중	강박, 생활장애, 집착
정소영·김종남(2014)	대학생용 SNS중독 경향성 척도	대학생	다중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신성만 외(2016)	한국판 대학생용 Bergan 페이스북 중독척도	대학생	페이스북	현저성, 내성, 기분변화, 재발, 금단, 갈등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윤경(2012)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서경현과 조성현(2013)이 대학생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추가한 척도를 사용하여,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 및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써(Cohen and Hoberman, 1983)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돌봄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 자신이 가치 있고 타인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존경지지, 사회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 도움, 정보, 정서적 관심, 정보, 칭찬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Antonucci(1985)는 사회적 지지가 타인에게 가지는 신뢰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 등 다양한 속성들을 얻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고 정의 내렸다. Jiang(2013)은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과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생 동안 추구하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를 실제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 사회의 인적자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지지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주는 사회관계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라 보았다. 이현송(2008)은 ‘사회에서 개인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구조에서 살며, 자신이 속한 곳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 부터 실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는 유효성이다.’라고 하였다. 박현일(2000)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사회적 지지의 개념들을 통합하여 사랑, 정보, 물질적 원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

인에게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 내렸다. 김명숙(2008)은 사회적 지지를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이 정서적 격려, 조언, 구체적인 원조 등의 제공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한우와 송형철(2015)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 또는 지원’이라 정의하였다. 최미애와 박성희(2020)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집단 속에서 스트레스와 위기를 완화하며, 기운을 북돋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지지, 교육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긍정적 평가지지, 자아존중감지지, 롤 모델 제공 지지에 대한 개인의 자각’이라 하였다. 홍현희(2015)는 사회적 지지를 ‘자신의 가족, 교사,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며, 사회적인 관계에서 스스로 가치가 있는 존재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기능적이고 건강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예지, 2018).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되기도 한다(House,1981). 이영미(2010)는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이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두 측면을 나누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은애(2018)는 개인이 객관적 측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인 측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의 사회적 지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은 지각하는 기능적인 측면의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오성희, 2010). 그 이유는 타인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사회적 지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윤소연, 1993; 이경남, 2001).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중대한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내려져 왔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가족, 친구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심미경, 1987; 김수민, 1988; Buhrmester and Furman, 1987; Furman and

Buhrmester, 1992; Pierce, Sarason and Sarason, 1996), 그 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지자원으로는 교사, 선배, 상급자 등 다양 하게 알려져 있다(House 1981; Dobow and Tisak, 1989; 박지원, 1985).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박지원(1985)은 관심, 애정, 신뢰, 존경의 행위를 의미하는 정서적 지지,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조언, 충고 등 사회에 대한 지식의 제공을 의미하는 정보적 지지, 물건, 돈, 시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물리적 지지, 칭찬, 가치고양, 평가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평가적지지 4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현미(2013)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얻는 친구지지, 부모에게 얻는 부모지지, 선생님으로부터 얻는 교사지지 3가지로 분류하였다. 홍구표(2016)는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가족과 친구를 제외한 지지는 개인이 속한 상황에 따라 중요 지지원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개인에게 영향력 있는 모든 타인을 포함하는 중요 타인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손진성(2016)은 사회적 지지의 요인을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지지행동 및 지지형태로 구분하여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정서적지지, 경제적 부분을 지원하는 도구적지지, 정보공유 및 제공을 하는 정보적지지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지지를 해주는 대상자에 따라 구분하는 요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영역인 부모지지, 가족지지 등을 들 수 있고 동료적인 측면에서 친구, 이웃의 영역인 친구지지, 타인지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방향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상호간의 대인교류를 통한다는 측면에서 클라이언트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수령적지지, 제공적지지이다.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 지지요인의 구분

구분	요인	요인설명
지지행동 및 지지형태	정서적지지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
	도구적지지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
	정보적지지	정보공유 및 제공
지지제공 대상자	부모지지, 가족지지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영역
	친구지지, 타인지지	동료적인 측면에서 친구, 이웃의 영역
지지의 방향성	수령적지지	클라이언트가 지지를 받는 것
	제공적지지	클라이언트가 지지를 주는 것

출처 : 손진성(201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홍구표(2016)연구에서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선행연구 고찰

1)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으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대인관계 요인은 또래와 이성 친구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지지받고,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 즉 친구를 쉽게 사귀거나 지지받기 위해 이용하는 목적을 의미한다(조윤희, 2016). 안지은 외(2020)는 ‘대인관계추구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토대로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공동체 내의 소속감을 경험하

고자 하는 SNS 이용동기'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SNS중독경향성과 정적상관이 높은 동기로 나타났다(이희복·김대환·최지윤·신명희, 2014; 성요안나·현명호, 2016; 조윤희, 2016; 안지은·우도현·성현아·배성만, 2020). 그리고 대인관계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희복 외, 2014; 홍신영, 2015; 노영, 2016; 성요안나·현명호, 2016; 조윤희, 2016; 한기쁨, 2018; 박경아, 2019; 안지은 외, 2020)가 다수 있었다. 하지만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선행연구(박웅기, 2013; 유현숙, 2013; 조진행, 2018; 문정환, 2020)도 있다. 이희복 등(2014)의 연구에서는 SNS사용시간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집착적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요안나와 현명호(2016)는 대인관계 요인이 높은 사람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장애를 SNS를 통해 극복 또는 보상받으려 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한다고 봤다. 박나리(2015)는 비대면으로 대인관계유지가 가능한 SNS의 특성은 현실의 불만족한 대인관계를 보상받고자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영(2016)은 SNS이용자는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이제 즐거움을 느껴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서 SNS중독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요인이 SNS중독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회피 요인은 외로움,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잊고 싶은 현실을 피하고자 SNS를 이용하는 목적을 의미한다(조윤희, 2016). 현실회피 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유현숙, 2013; 이희복 외, 2014; 조윤희, 2016; 이귀옥·박조원, 2018; 박경아, 201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귀옥과 박조원(2018)의 연구결과 SNS는 사회관계망이라는 인식으로 관계유지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자기표현 및 일상탈출이 주요한 동기로 확인되었으며, 일상탈출동기가 SNS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윤희(2016), 박경아(2019)의 연구결과에서도 현실회피 요인이 SNS중독경향성에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정보획득 요인은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SNS를 통해 얻으려는 동기를 의미한다(조윤희, 2016). 선행연구에서는 정보획득 요인은 SNS중독에 유의미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오승석, 2010; 박웅기, 2013; 유현숙, 2013; 홍신영, 2015; 노미진, 2016; 성요안나·현명

호, 2016; 조윤희, 2016). 그러나 상반되는 결과로 정보획득 요인은 SNS중독경향성과 유의미하지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희복 외, 2014; 노영, 2016; 유나 외, 2016; 배나령·강정석, 2018; 이귀옥·박조원, 2018; 조진행, 2018; 한기쁨, 2018; 박경아, 2019; 문정환, 2020; 안지은 외,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오락성 요인은 단순재미, 오락의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요인이다(조윤희, 2016). 오락성 요인은 오락추구, 재미추구(전수인, 2012; 최만희, 2014; 조윤희, 2016; 한기쁨, 2019), 혹은 시간보내기(이희복 외, 2014; 서인균·이연실, 2016) 등 다양한 이유로 혼용되고 있다(안지은 외, 2020). 오락성 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연구하는에서 박웅기(2013)의 연구를 제외하면 다른 선행연구(이희복 외, 2014; 홍신영, 2015; 노미진, 2016; 노영, 2016; 성요안나·현명호, 2016; 유나 외, 2016; 조윤희, 2016; 이귀옥·박조원, 2018; 조진행, 2018; 한기쁨, 2018; 박경아, 2019; 문정환, 2020; 안지은, 2020)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희복 외(2014)에 따르면 SNS이용에 재미를 느끼는 동기로 SNS이용하는 경우 SNS중독경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권과 최영(2015)은 오락성 요인은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머물게 만들고 습관적으로 접속하게 하는 강한 중독성이 특징으로 SNS를 중독에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오락성 요인이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김유정, 2011; 유나, 2016; 조윤희, 2016).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4개의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박웅기(2013)	△	×	+	△
유현숙(2013)	△	+	+	×
이희복 외(2014)	+	+	△	+
홍신영(2015)	+	×	+	+
노미진(2016)	×	×	+	+
노영(2016)	+	×	△	+
성요안나·현명호(2016)	+	×	+	+
유나 외(2016)	×	×	△	+
조윤희(2016)	×	+	+	+
이귀옥·박조원(2018)	×	+	△	+
조진행(2018)	△	×	△	+
한기쁨(2018)	×	×	△	+
박경아(2019)	+	+	×	+
문정환(2020)	△	×	△	+
안지은(2020)	+	×	△	+

+ = 정적인 영향이 있다. - = 부적인 영향이 있다. △ = 영향없음. × = 해당없음.

2) 사회적 지지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SNS중독경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치가 낮아졌다(조남근·양돈규 2001). 윤명숙과 박완경(2014)은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을 낮춘다고 얘기했다. 박진웅 외(2018)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면 우울, 외로움 등으로 현실에서 벗어나 온라인 대인관계에 집착하게 되어, SNS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므로 사회적 지지를 향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SNS중독경향성을 낮춘다는 결과가 존재한다(강현욱, 2013; 이도형·손은정, 2013; 윤명숙·박완경, 2014; 홍구표·전혜성, 2017; 박진웅·권명진, 2018; 김진숙·문현주·최은, 2019).

상반되는 연구로 이현주 외(2015)는 SNS의 친구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며, 관심분야에 서로 정보공유를 하며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 결과 SNS안에서 소속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몰입, 집착을 하며 SNS중독의 위협에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외에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SNS중독경향성은 서로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오윤경, 2012; 김나현, 2018; 유경자, 2017; 김예지, 2018; 배찬욱, 2020).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줄 때 다양한 심리변인이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예지(2018)). 사회적 지지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선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지지는 타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김은정, 2011; 김나현, 2018; 박경아, 2019)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한다. 김은정(2011)은 ‘개인은 가정에서 다양한 가족구성원들과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 도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족지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모지지이다.’라고 하였다. 한남식과 어주경(2012)은 가족지지가 ‘가족들과 상호작용으로 얻는 인정, 관심, 도움 등 긍정적인 자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런 가

족지지는 중독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족지지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한규현, 2014; 이용희, 2016; 조영운, 2016;). 또한 장웅(2018)의 연구에서도 가족지지가 게임중독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SNS중독경향성에서는 일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SNS중독경향성과 부적 상관관계와 부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장지희, 2015; 이선민, 2016, 홍구표, 2016, 변해림, 2017; 김은애, 2018)와 상반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선행연구(김나현, 2018; 박경아, 2019)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선행연구를 지지하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친구지지는 또래 지지라고도 하며, 정성인(1998)은 ‘친구지지는 또래나 친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친밀감, 즐거움, 사회성 발달 심리적 안정감 등의 긍정적 자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김은정(2011)은 ‘비자발적인 부모나 형제와 같은 관계와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는 친구관계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기원이며, 가족에게 받는 지지와는 다른 사회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친구지지요인은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조영운, 2016; 장웅, 2018). 또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SNS중독경향성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장지희, 2015; 이선민, 2016, 홍구표, 2016; 김나현, 2018;). 하지만 친구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선행연구의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홍구표, 2016; 김나현, 2018; 김은애, 2018)와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장지희2015; 변해림, 2017)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선행연구를 지지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 타인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찾지 못하였다. 홍구표(2016)는 중요 타인지지는 ‘가족과 친구를 제외한 교수, 멘토 등’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지지와 SNS중독경향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SNS중독경향성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장지희, 2015; 홍구표, 2016; 김나현, 2018;). 하지만 중요 타인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홍구표, 2016;

김나현, 2018; 김은애, 2018)와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장지희2015; 변해림, 2017)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선행연구를 지지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가 SNS중독경향성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려 한다.

<표 9>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SNS중독경향성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
장지희(2015)	-	△	△
홍구표(2016)	-	-	-
변해림(2017)	-	△	△
김나현(2018)	△	-	-
김은애(2018)	-	-	-

+ = 정적인 영향이 있다. - = 부적인 영향이 있다. △ = 영향없음. × = 해당없음.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SNS 이용동기, SNS중독경향성, 사회적 지지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2020년 5월 22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SNS 이용동기, SNS중독경향성,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02부를 수집하였다. 설문방식은 지면 설문(61부)과 인터넷 설문(141부)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와 여자 각각 50%와 50%로 나타났고, 학년별 분포로는 1학년 38.1%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이상 30.5%, 2학년 22.1%, 3학년 9.3%순서로 나타났다. 대학유형은 전문대학 34.5%, 4년제 대학 64.5%로 밝혀졌다. 학과계열로는 자연계열 43.7%, 인문계열 43.2%, 예체능계열 1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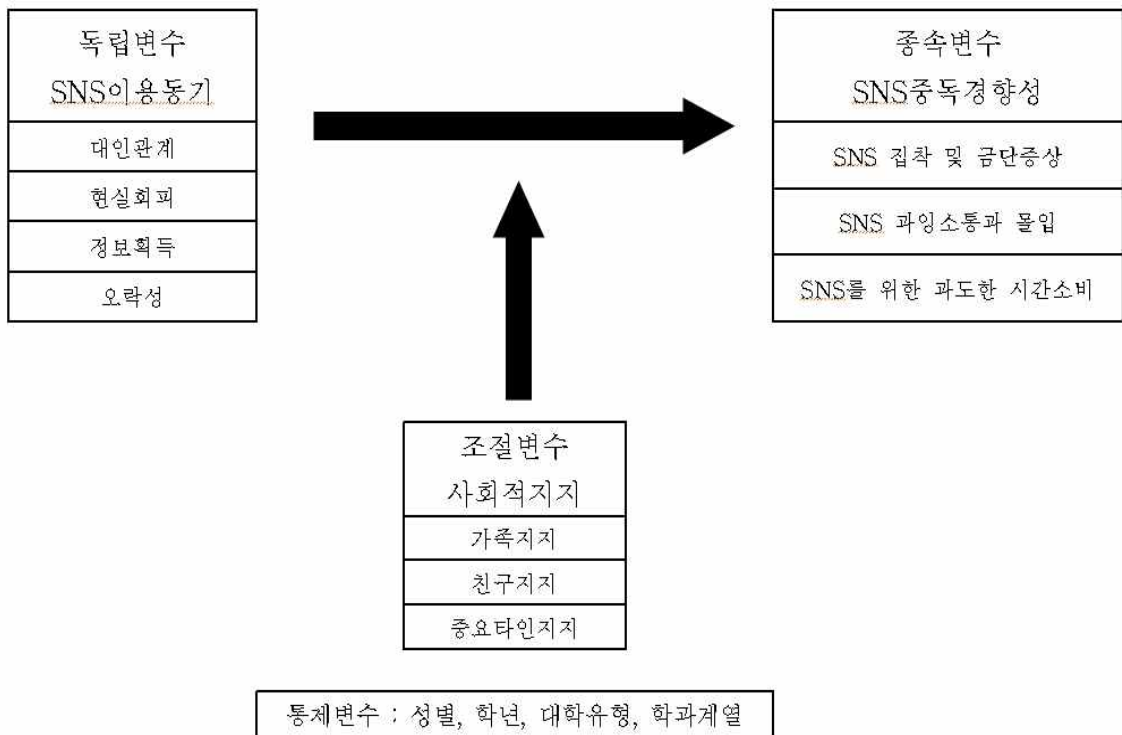
<표 10>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N=202)	남자	101	50
	여자	101	50
학년 (N=202)	1학년	59	38.1
	2학년	48	22.1
	3학년	35	9.3
	4학년 이상	60	30.5
대학유형 (N=197)	전문대학	68	34.5
	4년제 대학	129	64.5
학과계열 (N=199)	자연계열	87	43.7
	인문계열	86	43.2
	예체능계열	26	13.1

2. 연구모형 및 가설

SNS 이용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4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SNS 중독경향성은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SNS집착 및 금단증상, SNS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3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SNS 이용동기, SNS중독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 측정도구

1) SNS 이용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내가영(2010)이 SNS중이용자(heavy user)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도출한 40개의 문항을 정은정, 김원희와 이동형(2014)이 다시 요인 분석하여 추출한 총 21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 4가지로 만들어져 있다. 각각 문항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요인1 대인관계 6문항, 요인2 현실회피 7문항, 요인3 정보획득 5문항, 요인4 오락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적인 신뢰도를 얻기 위해 오락성 동기의 10번 문항을 삭제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로, 각 하위요인 별 구성문항 및 신뢰도는 <표 11>와 같다.

<표 11> SNS 이용동기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선행연구	본 연구
대인관계	6	2,3,5,8,9,14	.84	.86
현실회피	7	1,6,12,15,17,18,21	.86	.74
정보획득	5	4,11,16,19,20	.85	.69
오락성	2	7,13	.79	.74
전체	20		.87	.86

선행연구 : 정은정 · 김원희 · 이동형(2014)

2) SNS중독경향성 척도

오윤경(2012)은 SNS중독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게 SNS 중독에 관련된 척도가 연구 개발되지 않은 당시, 근본적으로 SNS는 인터넷을 통해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SNS 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맥락이 같이 한다는 근거로,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는 척도 8문항과 스마트쉘센터(2005)의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는 검사 ‘K척도’ 20문항을 수정한 ‘SNS중독경향성 척도’ 11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경현과 조성현(2013)이 오윤경(2012)의 척도 11문항을 전문가와 함께 9문항을 추가한 총 20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요인1 SNS 집착 및 금단증상 10문항, 요인2 SNS 과잉소통과 몰입 7문항, 요인3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 소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s α)는 로, 각 하위요인 별 구성문항 및 신뢰도는 <표 12>와 같다.

<표 12> SNS중독경향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s α	
			선행연구	본 연구
집착 및 금단증상	10	1,2,6,7,8,9,10,13,14,19	.91	.90
SNS 과잉소통과 몰입	7	11,12,15,16,17,18,20	.86	.85
과도한 시간소비	3	3,4,5	.78	.77
전체	20		.94	.94

선행연구 : 서경현 · 조성현(2013)

3)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Zimet, S. and Farley(1988)가 개발한 다차원 척도이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3가지 요인에 각 4가지 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옥선(2000)의 사용한 것을 홍구표(2016)가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가지 하위요인 중 중요 타인지지는 멘토, 선배, 교수, 은사 등 대학생에게 영향력 있는 가족, 친구를 제외한 모든 타인을 포함한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요인1 가족지지 4문항, 요인2 친구지지 4문항, 요인3 중요 타인지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s α)는 로, 각 하위요인 별 구성문항 및 신뢰도는 <표 13>와 같다.

<표 13>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s α	
			선행연구	본 연구
가족지지	4	3, 4, 8, 11	.86	.89
친구지지	4	6, 7, 9, 12	.86	.92
중요 타인지지	4	1, 2, 5, 10	.88	.91
전체	21		.87	.93

선행연구 : 홍구표(2016)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SNS이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및 빈도분석 실시 및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주요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SNS 이용동기, SNS중독경향성,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SNS중독경향성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SNS사용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SNS사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SNS사용 특성과 성별을 교차분석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4>과 같다. 대상자의 SNS사용 특성을 살펴보면, 주사용 SNS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43.7%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36.3%, 페이스북 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유튜브가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 31.7%, 페이스북 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인스타그램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튜브 32%, 트위터 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하루 이용시간은 1시간~3시간 미만 46.5%, 3시간~5시간 미만 25.7%, 1시간 미만 15.8% 마지막으로 5시간이상이 12%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시간~3시간 미만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3시간~5시간 미만 24.8, 1시간 미만 2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1시간~3시간 미만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3시간~5시간 미만 26.7%, 5시간 이상 15.8% 순으로 나타났다. SNS의 사용목적 1순위로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37.5%가 가장 많았고,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20.5%, 취미/관심사 공유 1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41%로 가장 많았고,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25%, 취미/관심사 공유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34%가 가장 많았고, 취미/관심사 공유 20%,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24.7%가 가장 많았고,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24.7%, 취미/관심사 공유 19.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28.4%로 가장 많았고, 취미/관심사 공유 24.2%,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2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28.3%로 가장 많았고,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21.2%, 취미/관심사 공유 15.2%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SNS에서만 유지되는 인맥으로는 소수 36.8%로 가장 많았으며, 없다 28.3%, 반 정도 21.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없다 40%로 가장 많았으며, 소수 27%, 반 정도 2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수 46.5%가 가장 많았으며, 반 정도 22.8%, 없다 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필 공개수준으로는 대부분 모든 친구에게만 공개40.8%, 대부분 비공개 33.8%, 모두에게 공개 14.4%, 대부분 모든 친구와 나의 네트워크에게만 공개 10.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 모든 친구에게만 공개 40%, 대부분 비공개 30%, 모두에게 공개 17%, 대부분 모든 친구와 나의 네트워크에게만 공개 1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친구에게만 공개 41.6%, 대부분 비공개 37.6%, 모두에게 공개 11.9%, 대부분 모든 친구와 나의 네트워크에게만 공개 8.9% 순으로 나타났다. 1주일간 포스팅 하는 횟수는 0회 47.8%로 가장 많았으며, 1~5회 41.2%, 6~10회 6.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0회 56%로 가장 많았으며, 1~5회 33%, 6~10회 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0회 49.5%로 가장 많았으며, 1~5회 39.5%, 6~10회 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댓글 작성빈도는 가끔 다는 편이다 57.3%로 가장 많았고, 전혀 달지 않는다 33.7%, 대체로 다는 편이다 8%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가끔 다는 편이다 51.5%로 가장 많았고, 전혀 달지 않는다 42.4%, 대체로 다는 편이다 5.1%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끔 다는 편이다 63%로 가장 많았고, 전혀 달지 않는다 25%, 대체로 다는 편이다 11%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을 작성하는 이유로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46.9%로 가장 많았으며, 게시글이 마음에 들어서 25.5%, 관심을 받기 위해 1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46.9%로 가장 많았으며, 게시글이 마음에 들어서 21.9%, 관심을 받기 위해 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46.8%로 가장 많았으며, 게시글이 마음에 들어서 28.6%, 관심을 받기 위해 1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이용 기기로는 스마트폰 94.5% 노트북 2.5%, 태블릿 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스마트폰 83% 노트북 4%, 태블릿 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스마트폰 96% 태블릿 2%, 노트북 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SNS사용 특성

(단위: 명, %)

항목/N	구분	빈도				전체	
		남성	비율	여성	비율	인원	비율
주 사용 SNS (N=201)	카카오토티	4	4.0	1	1.0	5	2.5
	페이스북	17	16.8	2	2.0	19	9.5
	인스타그램	32	31.7	56	56.0	88	43.7
	네이버 밴드	1	1.0	1	1.0	2	1.0
	트위터	4	1.0	5	5.0	9	4.5
	유튜브	41	40.5	32	32.0	76	36.3
	기타	2	2.0	3	3.0	5	2.5
SNS 하루 이용시간 (N=202)	1시간 미만	23	22.8	9	8.9	32	15.8
	1시간~3시간 미만	45	44.5	49	48.6	94	46.5
	3시간~5시간 미만	25	24.8	27	26.7	52	25.7
	5시간 이상	8	7.9	16	15.8	24	12.0
SNS사용목 적 (1순위) (N=200)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41	41.0	34	34.0	75	37.5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25	25.0	16	16.0	41	20.5
	취미/관심사 공유	13	13.0	20	20.0	33	16.5
	사진/동영상 등 일상 기록	9	9.0	12	12.0	21	10.5
	유명인(연예인 등)의 게시물 열람/교류	3	3.0	12	12.0	15	7.5
	새로운 사람과 친목 도모	4	4.0	3	3.0	7	3.5
	기타	5	5.0	3	3.0	8	4.0
SNS사용목 적 (2순위) (N=194)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20	21.1	28	28.3	48	24.7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27	28.4	21	21.2	48	24.7
	취미/관심사 공유	23	24.2	15	15.2	38	19.6
	사진/동영상 등 일상 기록	12	12.6	13	13.1	25	13.0
	유명인(연예인 등)의 게시물 열람/교류	5	5.3	11	11.1	16	8.2
	새로운 사람과 친목 도모	5	5.3	7	7.1	12	6.2
	기타	3	3.1	4	4.0	7	3.6

SNS에서만 유지되는 인맥 (N=201)	없다	40	40.0	17	16.8	57	28.3
	소수	27	27.0	47	46.5	74	36.8
	반 정도	21	21.0	23	22.8	44	21.9
	반 이상	7	7.0	12	11.9	19	9.5
	대부분	5	5.0	2	2	7	3.5
프로필 공개수준 (N=201)	대부분 비공개	30	30.0	38	37.6	68	33.8
	대부분 모든 친구에게만 공개	40	40.0	42	41.6	82	40.8
	대부분 모든 친구와 나의 네트워크에게만 공개	13	13.0	9	8.9	22	11.0
	모두에게 공개	17	17.0	12	11.9	29	14.4
1주일간 포스팅 하는 횟수 (N=201)	0회	56	56.0	40	39.5	96	47.8
	1~5회	33	33.0	50	49.5	83	41.2
	6~10회	8	8.0	5	5.0	13	6.5
	11~15회	2	2.0	4	4.0	6	3.0
	15회 이상	1	1.0	2	2.0	3	1.5
댓글 작성빈도 (N=199)	전혀 달지 않는다	42	42.4	25	25.0	67	33.7
	가끔 다는 편이다	51	51.5	63	63.0	114	57.3
	대체로 다는 편이다	5	5.1	11	11.0	16	8.0
	꼭 다는 편이다	1	1.0	1	1.0	2	1.0
댓글 작성이유 (N=141)	게시글이 마음에 들어서	14	21.9	22	28.6	36	25.5
	게시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8	12.5	8	10.4	16	11.3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30	46.9	36	46.8	66	46.9
	관심을 받기 위해	10	15.6	11	14.2	21	14.9
	기타	2	3.1	0	0	2	1.4
SNS이용 기기 (N=201)	데스크탑	1	1.0	0	0	1	.5
	노트북	4	4.0	1	1.0	5	2.5
	스마트폰	93	83.0	97	96.0	190	94.5
	태블릿	2	2.0	2	2.0	4	2.0
	기타	0	0	1	1.0	1	.5

2. 주요 요인들의 기술통계

SNS 이용동기, SNS중독경향성,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과 같다.

<표 15> 주요 요인의 기술통계 (N=202)

하위요인		MIN	MAX	M	SD
SNS 이용동기	대인관계	1	5	2.24	.873
	현실회피	1	5	2.50	.873
	정보획득	1	5	2.99	.747
	오락성	1	5	3.87	.825
	전체	1	5	2.67	.648
SNS중독경향성	집착 및 금단증상	1	4	2.17	.882
	SNS 과잉소통과 몰입	1	5	2.60	.917
	과도한 시간소비	1	5	2.67	1.011
	전체	1	4	2.39	.854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1	5	3.83	.863
	친구지지	1	5	3.94	.866
	중요 타인지지	1	5	3.53	1.054
	전체	1	5	3.77	.798

산출결과를 보면 SNS 이용동기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척도에서 2.68이며, 하위요인별로는 대인관계 2.24(SD=.872), 현실회피 2.51(SD=.876), 정보획득 2.99 (SD=.746), 오락성 3.86(SD=.825)로 나타났다. SNS중독경향성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척도에서 2.39이며, 집착 및 금단증상 2.16(SD=.882), SNS 과잉소통과 몰입 2.59(SD=.917), 과도한 시간소비 2.66(SD=.101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척도에서 3.76이며, 가족지지 3.82(SD=.862), 친구지지 3.93(SD=.866), 중요 타인지지 3.53(SD=1.053)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의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학년을 1학년과 2학년을 저학년, 3학년과 4학년을 고학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관계 동기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동기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16>과 같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다.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동기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성별	남성	101	2.24	.976	-.027	.979
		여성	101	2.24	.759		
	학년	저학년	107	2.35	.897	1.820	.070
		고학년	95	2.13	.833		
대인관계	대학유형	전문대학	68	2.36	.923	1.405	.162
		4년제 대학	129	2.18	.847		
	학과계열	자연계열	87	2.19	.811	.192	.825
		인문계열	86	2.27	.817		
	예체능계열	26	2.26	1.230			

*p<.05,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현실회피 동기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현실회피 동기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17>과 같다. 분석결과 학년에서 유의미하다고 나왔다. 저학년이 평균 2.62(SD=.8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학년은 2.36(SD=.828)로 나타났다. 이때 $p < 0.05$ 수준에서 학년에 따라 금단증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2.139$, $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현실회피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현실회피	성별	남성	101	2.51	.939	-.034	.973	
		여성	101	2.51	.812			
	학년	저학년	107	2.62	.840	2.139	.034*	
		고학년	95	2.36	.828			
	대학유형	전문대학	전문대학	68	2.59	.945	.782	.435
			4년제 대학	129	2.48	.858		
		자연계열	자연계열	87	2.50	.870		
			인문계열	86	2.56	.809		
	예체능계열	26	2.46	1.096				

* $p < .05$, ** $p < .01$, *** $p < .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보획득 동기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획득 동기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18>과 같다. 분석결과 대학유형에서 유의하다고 나왔다. 대학유형은 전문대학 3.17(SD=.738), 4년제 대학 2.88(SD=.727)로 나왔으며, 이때 $p < 0.01$ 수준에서 대학유형에 따라 정보획득 동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2.629$,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획득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정보획득	성별	남성	101	2.95	.761	-.678	.499
		여성	101	3.02	.733		
	학년	저학년	107	3.05	.762	1.255	.211
		고학년	95	2.92	.725		
	대학유형	전문대학	68	3.17	.738	2.629	.009**
		4년제 대학	129	2.88	.727		
		자연계열	87	2.96	.765		
	학과계열	인문계열	86	3.04	.670	.334	.717
		예체능계열	26	2.96	.936		

* $p < .05$, ** $p < .01$, *** $p < .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오락성 동기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오락성 동기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19>과 같다. 분석결과 학년에서 유의미하다고 나왔다. 저학년이 평균 3.98(SD=.7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학년은 3.73(SD=.849)로 나왔으며, 이때 $p < 0.05$ 수준에서 학년에 따라 금단증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2.208$, $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오락성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오락성	성별	남성	101	3.84	.907	-.340	.734	
		여성	101	3.88	.737			
	학년	저학년	107	3.98	.787	2.208	.028*	
		고학년	95	3.73	.849			
	대학유형	전문대학	전문대학	68	3.91	.857	.688	.492
			4년제 대학	129	3.83	.818		
		자연계열	자연계열	87	3.88	.805		
			인문계열	86	3.83	.791		
	예체능계열	26	3.92	1.026				

* $p < .05$, ** $p < .01$, *** $p < .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의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학년을 1학년과 2학년을 저학년, 3학년과 4학년을 고학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20>과 같다. 분석결과 학년,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하다고 나왔다. 저학년이 평균 2.30(SD=.8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학년은 2.01(SD=.091)로 나왔으며, 이때 $p < 0.05$ 수준에서 학년에 따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2.350$, $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유형은 전문대학이 평균 2.40 (SD=.970), 4년제 대학 2.05(SD=.819) 순으로 나왔으며, 이때 $p < 0.01$ 수준에서 대학유형에 따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2.718$,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성별	남성	101	2.09	.937	-1.173	.242
		여성	101	2.23	.822		
	학년	저학년	107	2.30	.855	2.350	.020*
		고학년	95	2.01	.891		
금단증상	대학유형	전문대학	68	2.40	.970	2.718	.007**
		4년제 대학	129	2.05	.819		
	학과계열	자연계열	87	2.09	.824	1.399	.249
		인문계열	86	2.29	.902		
예체능계열		26	2.05	1.000			

* $p < .05$, ** $p < .01$, *** $p < .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21>과 같다. 분석결과 학년에서 유의미하다고 나왔다. 저학년이 평균 2.79 (SD=.8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학년은 2.41(SD=.933)로 나왔으며, 이때 $p < 0.01$ 수준에서 학년에 따라 금단증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F=2.78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SNS과잉소통 및 몰입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과잉소통	성별	남성	101	2.51	.937	-1.340	.182
		여성	101	2.68	.822		
	학년	저학년	107	2.76	.873	2.787	.006**
		고학년	95	2.41	.933		
	대학유형	전문대학	68	2.76	.970	1.805	.073
		4년제 대학	129	2.51	.819		
	학과계열	자연계열	87	2.59	.847	.000	1.000
		인문계열	86	2.60	.947		
		예체능계열	26	2.59	1.037		

* $p < .05$, ** $p < .01$, *** $p < .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과도한 시간소비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과도한 시간소비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22>과 같다. 분석결과 학년에서 유의미하다고 나왔다. 저학년이 평균 2.79 (SD=.8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학년은 2.41(SD=.933)로 나왔으며, 이때 $p < 0.01$ 수준에서 학년에 따라 과도한 시간소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F=2.78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과도한 시간소비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시간소비	성별	남성	101	2.52	1.051	-1.962	.051
		여성	101	2.81	.954		
	학년	저학년	107	2.79	.986	1.965	0.51
		고학년	95	2.51	1.024		
	대학유형	전문대학	68	2.87	1.131	2.105	.037*
		4년제 대학	129	2.55	.932		
		자연계열	87	2.63	.995		
	학과계열	인문계열	86	2.75	1.028	.836	.435
		예체능계열	26	2.47	1.002		

* $p < .05$, ** $p < .01$, *** $p < .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의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학년을 1학년과 2학년을 저학년, 3학년과 4학년을 고학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지지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23>과 같다. 분석결과 학년,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하다고 나왔다. 대학유형은 4년제 대학이 평균 3.92(SD=.827), 전문대학이 평균 3.64(SD=.895) 순으로 나왔으며, 이때 $p < 0.05$ 수준에서 대학유형에 따라 가족지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F = -2.158, 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성별	남성	101	3.81	.880	-1.142	.887
		여성	101	3.83	.848		
	학년	저학년	107	3.73	.934	-1.615	.108
		고학년	95	3.93	.765		
가족지지	대학유형	전문대학	68	3.64	.895	-2.158	.032*
		4년제 대학	129	3.92	.827		
	학과계열	자연계열	87	3.85	.936	.115	.892
		인문계열	86	3.79	.757		
		예체능계열	26	3.85	.916		

* $p < .05$, ** $p < .01$, *** $p < .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친구지지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지지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24>과 같다. 분석결과 학년,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하다고 나왔다. 대학유형은 4년제 대학이 평균 4.02(SD=.780), 전문대학이 평균 3.72(SD=.997) 순으로 나왔으며, 이때 $p < 0.05$ 수준에서 대학유형에 따라 친구지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F = -2.333, 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지지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친구지지	성별	남성	101	3.93	.953	-.142	.887
		여성	101	3.94	.774		
	학년	저학년	107	3.90	.867	-.570	.569
		고학년	95	3.97	.867		
	대학유형	전문대학	68	3.72	.997	-2.333	.021*
		4년제 대학	129	4.02	.780		
	학과계열	자연계열	87	3.97	.925	.977	.378
		인문계열	86	3.83	.772		
		예체능계열	26	4.07	.963		

* $p < .05$, ** $p < .01$, *** $p < .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중요 타인지지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요 타인지지의 차이분석결과는 <표 25>과 같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다.

<표 2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요 타인지지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N(명)	M	SD	t/F	p
타인지지	성별	남성	101	3.60	1.026	1.052	.294
		여성	101	3.45	1.079		
	학년	저학년	107	3.53	1.073	.059	.953
		고학년	95	3.52	1.036		
	대학유형	전문대학	68	3.36	1.070	-1.576	.117
		4년제 대학	129	3.60	1.016		
	학과계열	자연계열	87	3.51	1.067	1.043	.354
		인문계열	86	3.43	.992		
		예체능계열	26	3.76	1.166		

* $p < .05$, ** $p < .01$, *** $p < .001$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과잉소통, 금단증상, 시간소비),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먼저 성별은 학과계열($r=.156, p<.05$)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년($r=-.199,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년은 대학유형($r=.401,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대인관계($r=-.161, p<.05$), 정보획득($r=-.139, p<.05$), 오락성($r=-.180, p<.05$), 금단증상($r=-.178, p<.05$), 과잉소통($r=-.212, p<.01$), 시간소비($r=-.142, p<.05$)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학유형은 가족지지($r=.153, p<.05$), 친구지지($r=.165, p<.05$)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과계열($r=-.192, p<.01$), 정보획득($r=-.185, p<.01$), 금단증상($r=-.191, p<.01$), 시간소비($r=-.149, p<.05$)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는 현실회피($r=.523, p<.01$), 정보획득($r=.379, p<.01$), 금단증상($r=.475, p<.01$), 과잉소통($r=.531, p<.01$), 시간소비($r=.296, p<.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족지지($r=-.158, p<.05$), 친구지지($r=-.217,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현실회피는 정보획득($r=.419, p<.01$), 오락성($r=.244, p<.01$), 금단증상($r=.692, p<.01$), 과잉소통($r=.660, p<.01$), 시간소비($r=.573, p<.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족지지($r=-.275, p<.01$), 친구지지($r=-.286, p<.01$), 타인지지($r=-.212,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보획득은 오락성($r=.360, p<.01$), 금단증상($r=.390, p<.01$), 과잉소통($r=.436, p<.01$), 시간소비($r=.360, p<.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오락성은 금단증상($r=.193, p<.01$), 과잉소통($r=.350, p<.01$), 시간소비($r=.377, p<.0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금단증상은 과잉소통($r=.815, p<.01$), 시간소비($r=.37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족지지($r=-.378, p<.01$), 친구지지($r=-.479, p<.01$), 타인지지($r=-.290,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과잉소통은 시간소비($r=.76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족지지($r=-.302, p<.01$), 친

구지지($r=-.318$, $p<.01$), 타인지지($r=-.164$, $p<.05$)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시간소비는 가족지지($r=-.290$, $p<.01$), 친구지지($r=-.351$, $p<.01$), 타인지지($r=-.290$, $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족지지는 친구지지($r=.684$, $p<.01$), 타인지지($r=.555$,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지지는 타인지지($r=.596$,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26>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별	1												
2. 학년	-.199**	1											
3. 대학유형	-.025	.401**	1										
4. 학과계열	.156*	-.119	-.192**	1									
5. 대인관계	.002	-.161*	-.100	.037	1								
SNS 이용동기						1							
6. 현실회피	.002	-.129	-.056	.004	.523**								
7. 정보획득	.048	-.139*	-.185**	.023	.379**	.419**	1						
8. 오락성	.024	-.180*	-.049	-.001	.031	.244**	.360**	1					
SNS중독 경향성									1				
9. 금단증상	.083	-.178*	-.191**	.031	.475**	.692**	.390**	.193**					
10. 과잉소통	.094	-.212**	-.128	.001	.531**	.660**	.436**	.350**	.815**	1			
11. 시간소비	.137	-.142*	-.149*	-.019	.296**	.573**	.360**	.377**	.768**	.767**	1		
사회적 지지												1	
12. 가족지지	.010	.104	.153*	-.014	-.158*	-.275**	-.079	.078	-.378**	-.302**	-.290**		
13. 친구지지	.010	.039	.165*	-.001	-.217**	-.286**	-.127	.128	-.479**	-.318**	-.351**	.684**	1
14. 타인지지	-.074	.000	.112	.045	.015	-.212**	-.038	-.055	-.290**	-.164*	-.290**	.555**	.596**

*p<.05, **p<.01, ***p<.001

5. SNS 이용동기,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SNS 이용동기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모두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NS 이용동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제변수인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과 함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명목척도인 성별, 대학유형, 학과계열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변량을 49.2% 설명할 수 있으며, F값이 20.104($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다. Durbin-Watson값이 1.684으로 회귀모형에 자기상관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 학년, 학과계열, 정보획득, 오락성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학유형($\beta = .148,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대인관계($\beta = .155, p < .01$), 현실회피($\beta = .552, p < .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	p	
(상수)	1.905	-	10.221***	.000	
인구사회학 적특성	성별 ¹⁾	-.093	-.053	-.963	.337
	학년	-.011	-.014	-.237	.813
	대학유형 ²⁾	.276	.148	2.504*	.013
	학과계열 ³⁾	.123	.069	.816	.415
	학과계열 ⁴⁾	.228	.128	1.532	.127
SNS 이용동기	대인관계	.157	.155	2.37*	.019
	현실회피	.581	.552	7.953***	.000
	정보획득	.003	.003	.044	.965
	오락성	.030	.062	.478	.633
R^2 (adj. R^2)		.492(.467)			
$F(p)$		20.104***(.000)			
Durbin-Watson		1.684			

*p<.05, **p<.01, ***p<.001

1)더미성별: 여=0, 남=1, 2)더미대학유형: 0=4년제 대학, 1=전문대학, 3)학과계열: 0=인문계열, 예체능계열, 1=자연계열, 4)학과계열: 0=자연계열, 예체능계열, 1=인문계열

2)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SNS 파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SNS 파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8>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변량을 53.2% 설명할 수 있으며, F값이 23.594(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다. Durbin-Watson값이 1.616로 회귀모형에 자기상관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정보획득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인관계($\beta=.299$, $p<.001$), 현실회피($\beta=.394$, $p<.001$), 오락성($\beta=.105$, $p<.01$)은 SNS 파잉소통 및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8>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SNS 파인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	p
(상수)		2.625	-	14.219***	.000
인구사회학 적특성	성별 ¹⁾	-.164	-.090	-1.711	.089
	학년	-.023	-.029	-.512	.609
	대학유형 ²⁾	.089	.046	.810	.419
	학과계열 ³⁾	.064	.035	.431	.667
	학과계열 ⁴⁾	-.032	-.017	-.214	.830
SNS 이용동기	대인관계	.313	.299	4.770***	.000
	현실회피	.429	.394	5.922***	.000
	정보획득	.066	.053	.839	.402
	오락성	.215	.195	3.471**	.001
R^2 (adj. R^2)		.532(.509)			
$F(p)$		23.594***(.000)			
Durbin-Watson		1.616			

*p<.05, **p<.01, ***p<.001

1)더미성별: 여=0, 남=1, 2)더미대학유형: 0=4년제 대학, 1=전문대학, 3)학과계열: 0=인문계열, 예체능계열, 1=자연계열, 4)학과계열: 0=자연계열, 예체능계열, 1=인문계열

3)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9>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변량을 40.6% 설명할 수 있으며, F값이 14.22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다. Durbin-Watson값이 1.694로 회귀모형에 자기상관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학년, 학과계열, 현실회피, 정보획득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β =-.041,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대학유형(β =.14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현실회피($\beta=.479$, $p<.001$), 오락성($\beta=.239$, $p<.001$)은 과도한 시간소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	p	
(상수)	2.286	-	9.951***	.000	
인구사회학 적특성	성별 ¹⁾	-.258	-.128	-2.164*	.032
	학년	.034	.041	.628	.531
	대학유형 ²⁾	.297	.140	2.185*	.030
	학과계열 ³⁾	.254	.124	1.372	.172
	학과계열 ⁴⁾	.271	.133	1.474	.142
SNS 이용동기	대인관계	.031	.027	.382	.703
	현실회피	.576	.479	6.387***	.000
	정보획득	.002	.001	.016	.987
	오락성	.292	.239	3.795***	.000
R^2 (adj. R^2)		.406(.378)			
$F(p)$		14.223***(.000)			
Durbin-Watson		1.694			

* $p<.05$, ** $p<.01$, *** $p<.001$

1)더미성별: 여=0, 남=1, 2)더미대학유형: 0=4년제 대학, 1=전문대학, 3)학과계열: 0=인문계열, 예체능계열, 1=자연계열, 4)학과계열: 0=자연계열, 예체능계열, 1=인문계열

4)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0>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변량을 26.9% 설명할 수 있으며, F값이 8.630($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다. Durbin-Watson값이 1.446로 회귀모형에 자기상관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가족, 중요 타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친구지지($\beta=-.41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	p	
(상수)	2.238	-	10.050***	.000	
인구사회학 적특성	성별 ¹⁾	-.081	-.045	-.692	.490
	학년	-.089	-.120	-1.698	.091
	대학유형 ²⁾	.142	.076	1.079	.282
	학과계열 ³⁾	.109	.061	.603	.547
	학과계열 ⁴⁾	.219	.122	1.218	.225
사회적 지지	가족	-.097	-.093	-1.011	.313
	친구	-.418	-.410	-4.384***	.000
	중요 타인	.036	.042	.501	.617
R^2 (adj. R^2)		.269(.237)			
$F(p)$		8.630***(.000)			
Durbin-Watson		1.446			

* $p<.05$, ** $p<.01$, *** $p<.001$

1)더미성별: 여=0, 남=1, 2)더미대학유형: 0=4년제 대학, 1=전문대학, 3)학과계열: 0=인문계열, 예체능계열, 1=자연계열, 4)학과계열: 0=자연계열, 예체능계열, 1=인문계열

5)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변량을 15.5% 설명할 수 있으며, F값이 4.320($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다. Durbin-Watson값이 1.364로 회귀모형에 자기상관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 대학유형, 학과계열, 가족, 중요 타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beta = -.163, p < .05$)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친구지지($\beta = -.259, p < .05$)는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	p	
(상수)	2.942	-	11.970***	.000	
인구사회학 적특성	성별 ¹⁾	-.147	-.081	-1.141	.255
	학년	-.125	-.163	-2.146*	.033
	대학유형 ²⁾	.019	.010	.130	.897
	학과계열 ³⁾	.077	.042	.384	.702
	학과계열 ⁴⁾	-.004	-.002	-.020	.984
사회적 지지	가족	-.158	-.148	-1.496	.136
	친구	-.273	-.259	-2.582*	.011
	중요 타인	.075	.085	.953	.342
R^2 (adj. R^2)		.155(.119)			
$F(p)$		4.320***(.000)			
Durbin-Watson		1.364			

* $p < .05$, ** $p < .01$, *** $p < .001$

1)더미성별: 여=0, 남=1, 2)더미대학유형: 0=4년제 대학, 1=전문대학, 3)학과계열: 0=인문계열, 예체능계열, 1=자연계열, 4)학과계열: 0=자연계열, 예체능계열, 1=인문계열

6)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통제변수가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변량을 16.8% 설명할 수 있으며, F값이 4.758($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다. Durbin-Watson값이 1.259로 회귀모형에 자기상관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 가족, 중요 타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친구지지($\beta = -.259, p < .05$)는 과도한 시간소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	p	
(상수)	2.701	-	9.972***	.000	
인구사회학 적특성	성별 ¹⁾	-.222	-.110	-1.565	.119
	학년	-.073	-.086	-1.148	.252
	대학유형 ²⁾	.153	.072	.953	.342
	학과계열 ³⁾	.227	.111	1.033	.303
	학과계열 ⁴⁾	.231	.113	1.059	.291
사회적 지지	가족	-.023	-.020	-.202	.840
	친구	-.302	-.259	-2.600*	.010
	중요 타인	-.096	-.099	-1.111	.268
R^2 (adj. R^2)		.168(.133)			
$F(p)$		4.758***(.000)			
Durbin-Watson		1.259			

* $p < .05$, ** $p < .01$, *** $p < .001$

1)더미성별: 여=0, 남=1, 2)더미대학유형: 0=4년제 대학, 1=전문대학, 3)학과계열: 0=인문계열, 예체능계열, 1=자연계열, 4)학과계열: 0=자연계열, 예체능계열, 1=인문계열

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4개의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대인관계, 현실회피, 정보획득, 오락성), 3개의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금단증상, 과잉소통, 시간소비), 3개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 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36회 실시하였다.

1)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가족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33>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SE	β	t/p	R ²	ΔR^2	F
1	대인관계	.481	.063	.475	7.639***	.226	.222	58.355***
2	대인관계	.431	.060	.426	7.196***	.320	.313	46.855***
	가족지지	-.318	.061	-.311	-5.253***			
3	대인관계	.440	.059	.435	7.449***	.344	.334	34.649***
	가족지지	-.323	.060	-.316	-5.413***			
	대인관계× 가족지지	-.170	.063	-.156	-2.698**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226으로, 대인관계($\beta=.475$,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22.6%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8.35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320으로, 대인관계($\beta=.426$, $p<.001$)와 가족지지($\beta=-.311$,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6.85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344로, 대인관계($\beta=.435$, $p<.001$)와 가족지지($\beta=-.316$, $p<.001$), 그리고 대인관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56$, $p<.01$)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4.4%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4.64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동기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4>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친구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34>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SE	β	t/p	R ²	ΔR^2	F
1	대인관계	.481	.063	.475	7.639***	.226	.222	58.355***
2	대인관계	.394	.058	.389	6.779***	.374	.368	59.534***
	친구지지	-.402	.059	-.395	-6.872***			
3	대인관계	.393	.058	.389	6.793***	.385	.372	40.729***
	친구지지	-.398	.058	-.391	-6.814***			
	대인관계× 친구지지	-.088	.058	-.085	-1.525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226으로, 대인관계($\beta=.475$,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22.6%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8.35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374로, 대인관계($\beta=.389$, $p<.001$)와 친구지지($\beta=-.395$,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7.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9.53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385로, 대인관계($\beta=.389$, $p<.001$)와 친구지지($\beta=-.391$,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85$, $p>.05$)은 종속변수인 SNS집착 및 금단증상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하여 대인관계와 친구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5>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35> 대인관계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대인관계	.481	.063	.475	7.639***	.226	.222	58.355***
2	대인관계	.485	.059	.480	8.166***	.314	.307	45.506***
	타인지지	-.248	.049	-.297	-5.050***			
3	대인관계	.489	.058	.483	8.412***	.347	.337	35.001***
	타인지지	-.286	.050	-.342	-5.771***			
	대인관계× 타인지지	-.159	.050	-.186	-3.149**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226으로, 대인관계($\beta=.475$,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22.6%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8.35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수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314으로, 대인관계(β

=.480, $p < .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 = -.297$, $p < .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1.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5.506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347로, 대인관계($\beta = .483$, $p < .001$)와 가족지지($\beta = -.342$, $p < .001$), 그리고 대인관계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 = -.186$, $p < .01$)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4.7%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5.001($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동기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동기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가족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36>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2	ΔR^2	F
1	현실회피	.694	.056	.660	12.149***	.435	.433	154.232***
2	현실회피	.636	.055	.605	11.666***	.491	.486	96.056***
	가족지지	-.248	.053	-.242	-4.672***			
3	현실회피	.657	.055	.625	11.833***	.499	.491	65.718***
	가족지지	-.231	.054	-.226	-4.310***			
	현실회피× 가족지지	-.110	.063	-.091	-1.748			

* $p < .05$, ** $p < .01$, *** $p < .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435으로, 현실회피($\beta=.66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43.5%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54.23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491로, 현실회피($\beta=.605$, $p<.001$)와 가족지지($\beta=-.242$,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49.1%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6.05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499로, 현실회피($\beta=.625$, $p<.001$)와 가족지지($\beta=-.226$,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현실회피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91$, $p>.05$)은 종속변수인 SNS집착 및 금단증상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하여 현실회피와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5)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친구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37>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현실회피	.694	.056	.660	12.419***	.435	.433	154.232***
2	현실회피	.609	.052	.579	11.779***	.546	.542	119.781***
	친구지지	-.349	.050	-.343	-6.972***			
3	현실회피	.643	.053	.612	12.094***	.558	.552	83.487***
	친구지지	-.322	.051	-.316	-6.316***			
	현실회피× 친구지지	-.140	.060	-.117	-2.344*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435로, 현실회피($\beta=.66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43.5%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54.23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546으로, 현실회피($\beta=.579$, $p<.001$)와 친구지지($\beta=-.343$,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54.6%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19.78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558로, 현실회피($\beta=.612$, $p<.001$)와 친구지지($\beta=-.316$, $p<.001$), 그리고 대인관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17$, $p<.05$)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55.8%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83.48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현실회피 동기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38> 현실회피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현실회피	.694	.056	.660	12.419***	.435	.433	154.232***
2	현실회피	.661	.055	.628	11.944***	.466	.461	86.968***
	타인지지	-.150	.044	-.179	-3.400**			
3	현실회피	.683	.056	.649	12.292***	.480	.473	61.037***
	타인지지	-.149	.044	-.178	-3.425**			
	현실회피× 타인지지	-.119	.052	-.120	-2.316*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435로, 현실회피($\beta=.66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43.5%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54.23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466으로, 현실회피($\beta=.628$,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79$, $p<.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46.6%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86.96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480로, 현실회피($\beta=.649$,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78$, $p<.01$), 그리고 대인관계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20$, $p<.05$)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48%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61.03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현실회피 동기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9>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가족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39>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정보획득	.461	.077	.390	5.991***	.152	.148	35.888***
2	정보획득	.428	.072	.362	5.981***	.274	.266	37.509***
	가족지지	-.358	.062	-.350	-5.773***			
3	정보획득	.446	.072	.377	6.215***	.287	.286	26.575***
	가족지지	-.357	.062	-.349	-5.793***			
	정보획득× 가족지지	-.166	.086	-.116	-1.921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152으로, 정보획득($\beta=.39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15.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5.88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274로, 정보획득($\beta=.362$, $p<.001$)와 가족지지($\beta=-.35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27.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7.50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87로, 정보획득($\beta=.377$, $p<.001$)와 가족지지($\beta=-.349$,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정보획득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16$, $p>.05$)은 종속변수인 SNS집착 및 금단증상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하여 정보획득과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8)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0>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친구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0>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정보획득	.461	.077	.390	5.991***	.152	.148	35.888***
2	정보획득	.395	.069	.334	5.981***	.340	.333	51.228***
	친구지지	-.445	.059	-.437	-5.773***			
3	정보획득	.439	.069	.372	6.215***	.368	.359	38.508***
	친구지지	-.428	.058	-.420	-5.793***			
	정보획득× 친구지지	-.228	.076	-.174	-2.994**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52으로, 정보획득($\beta=.39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15.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5.88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수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340로, 정보획득($\beta=.334$, $p<.001$)와 친구지지($\beta=-.437$,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1.22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수 친구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368로, 정보획득($\beta=.372$, $p<.001$)와 친구지지($\beta=-.420$, $p<.001$), 그리고 정보획득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74$, $p<.01$)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6.8%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8.50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정보획득 동기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1> 정보획득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정보획득	.461	.077	.390	5.991***	.152	.148	35.888***
2	정보획득	.449	.074	.380	6.089***	.228	.220	29.348***
	타인지지	-.231	.052	-.275	-4.415***			
3	정보획득	.434	.073	.367	5.931***	.247	.236	21.655***
	타인지지	-.248	.052	-.297	-4.750***			
	정보획득× 타인지지	-.135	.060	-.141	-2.252*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52으로, 정보획득($\beta=.39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15.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5.88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228로, 정보획득($\beta=.380$,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275$,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22.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9.34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47로, 정보획득($\beta=.367$,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297$, $p<.001$), 그리고 정보획득과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41$, $p<.05$)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24.7%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1.65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정보획득 동기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가족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2>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2	ΔR^2	F
1	오락성	.206	.074	.193	2.778**	.037	.032	7.719***
2	오락성	.239	.068	.224	3.503**	.193	.185	23.796***
	가족지지	-.405	.065	-.396	-6.199***			
3	오락성	.224	.068	.209	3.281**	.209	.197	17.438***
	가족지지	-.397	.065	-.388	-6.110***			
	오락성×가족지지	.157	.079	.127	2.001*			

* $p<.05$, ** $p<.01$, ***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037으로, 오락성($\beta=.193$, $p<.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7%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71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193으로, 오락성($\beta=.224$, $p<.01$)와 가족지지($\beta=-.396$,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19.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3.79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오락성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09로, 오락성($\beta=.209$, $p<.01$)와 가족지지($\beta=-.388$, $p<.001$), 그리고 오락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27$, $p<.05$)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20.9%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7.43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오락성 동기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친구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3>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오락성	.206	.074	.193	2.778**	.037	.032	7.719***
2	오락성	.276	.064	.258	4.305***	.295	.288	41.734***
	친구지지	-.522	.061	-.512	-8.542***			
3	오락성	.274	.065	.256	4.233***	.296	.285	27.766***
	친구지지	-.519	.062	-.509	-8.396***			
	오락성× 친구지지	.030	.072	.025	.419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037으로, 오락성($\beta=.193$, $p<.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7%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71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193으로, 오락성($\beta=.224$, $p<.01$)와 친구지지($\beta=-.396$,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19.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3.79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오락성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296로, 오락성($\beta=.256$, $p<.001$)와 친구지지($\beta=-.509$,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오락성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25$, $p>.05$)은 종속변수인 SNS집착 및 금단증상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하여 오락성과 친구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2)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4> 오락성과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집착 및 금단증상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오락성	.206	.074	.193	2.778**	.037	.032	7.719***
2	오락성	.190	.071	.177	2.655**	.115	.106	12.959***
	타인지지	-.234	.056	-.280	-4.190***			
3	오락성	.170	.073	.159	2.325*	.123	.110	9.242***
	타인지지	-.240	.056	-.287	-4.291***			
	오락성× 타인지지	.092	.070	.089	1.309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037으로, 오락성($\beta=.193$, $p<.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3.7%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71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115으로, 오락성($\beta=.177$, $p<.01$)와 중

요 타인지지($\beta=-.280, p<.001$)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변량을 11.5%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2.95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오락성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123로, 오락성($\beta=.159, p<.05$)와 중요 타인지지($\beta=-.287,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오락성과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89, p>.05$)은 종속변수인 SNS집착 및 금단증상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하여 오락성과 중요 타인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3)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가족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5>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2	ΔR^2	F
1	대인관계	.558	.063	.531	8.871***	.282	.279	78.688***
2	대인관계	.521	.062	.496	8.446***	.331	.324	49.247***
	가족지지	-.238	.062	-.224	-3.807***			
3	대인관계	.523	.062	.497	8.438***	.332	.322	32.748***
	가족지지	-.238	.063	-.224	-3.810***			
	대인관계× 가족지지	-.027	.066	-.024	-.406			

* $p<.05$, ** $p<.01$, ***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282로, 대인관계($\beta=.531$,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8.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8.68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331으로, 대인관계($\beta=.496$, $p<.001$)와 가족지지($\beta=-.224$,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33.1%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9.24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332로, 대인관계($\beta=.497$, $p<.001$)와 가족지지($\beta=-.224$,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24$,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대인관계와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4)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친구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6>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대인관계	.558	.063	.531	8.871***	.282	.279	78.688***
2	대인관계	.510	.063	.485	8.133***	.325	.318	47.961***
	친구지지	-.225	.063	-.212	-3.557***			
3	대인관계	.510	.063	.485	8.114***	.326	.315	31.881***
	친구지지	-.224	.063	-.211	-3.527***			
	대인관계× 친구지지	-.023	.063	-.022	-.370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282로, 대인관계($\beta=.531$,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8.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8.68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수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325으로, 대인관계($\beta=.485$, $p<.001$)와 친구지지($\beta=-.212$,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32.5%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7.96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수 친구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326로, 대인관계($\beta=.485$, $p<.001$)와 친구지지($\beta=-.211$,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22$,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대인관계와 친구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5)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7> 대인관계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중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대인관계	.558	.063	.531	8.871***	.282	.279	78.688***
2	대인관계	.561	.062	.534	9.078***	.312	.305	45.094***
	타인지지	-.150	.051	-.172	-2.922**			
3	대인관계	.563	.062	.536	9.141***	.320	.310	31.094***
	타인지지	-.169	.053	-.195	-3.223***			
	대인관계× 타인지지	-.083	.053	-.094	-1.562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282로, 대인관계($\beta=.531$,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8.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8.68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수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312으로, 대인관계($\beta=.534$,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72$, $p<.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31.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5.09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320로, 대인관계($\beta=.536$,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95$,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94$,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대인관계와 중요 타인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6)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가족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8>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2	ΔR^2	F
1	현실회피	.698	.059	.639	11.753***	.408	.406	138.123***
2	현실회피	.657	.060	.602	11.002***	.435	.429	76.594***
	가족지지	-.177	.058	-.167	-3.053***			
3	현실회피	.661	.061	.605	10.799***	.435	.427	50.859***
	가족지지	-.174	.059	-.164	-2.944**			
	현실회피× 가족지지	-.021	.069	-.016	-.299			

* $p<.05$, ** $p<.01$, ***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408로, 현실회피($\beta=.639$,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40.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38.12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435으로, 현실회피($\beta=.602$, $p<.001$)와 가족지지($\beta=-.167$,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43.5%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6.59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435로, 현실회피($\beta=.605$, $p<.001$)와 가족지지($\beta=-.164$, $p<.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현실회피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16$,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현실회피와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7)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9>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친구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49>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현실회피	.698	.059	.639	11.753***	.408	.406	138.123***
2	현실회피	.653	.060	.597	10.922***	.438	.432	77.520***
	친구지지	-.187	.058	-.177	-3.227***			
3	현실회피	.669	.062	.613	10.762***	.441	.432	51.981***
	친구지지	-.173	.060	-.164	-2.913**			
	현실회피× 친구지지	-.068	.070	-.055	-.973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408로, 현실회피($\beta=.639$,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40.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38.12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438으로, 현실회피($\beta=.597$, $p<.001$)와 친구지지($\beta=-.177$,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43.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7.520($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441로, 현실회피($\beta=.613$, $p<.001$)와 친구지지($\beta=-.164$, $p<.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현실회피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55$,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현실회피와 친구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8)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0>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0> 현실회피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중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현실회피	.698	.059	.639	11.753***	.408	.406	138.123***
2	현실회피	.688	.060	.630	11.397***	.411	.405	69.495***
	타인지지	-.046	.048	-.053	-.960			
3	현실회피	.687	.061	.629	11.178***	.411	.402	46.107***
	타인지지	-.046	.048	-.053	-.958			
	현실회피× 타인지지	.007	.057	.007	.128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408로, 현실회피($\beta=.639$,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40.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38.12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수인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411으로, 현실회피($\beta=.630$,

p<.001)는 유의미했지만, 중요 타인지지($\beta=-.053$, $p>.05$)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441로, 현실회피($\beta=.629$, $p<.001$)는 유의미했지만, 중요 타인지지($\beta=-.053$, $p>.05$)와 현실회피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07$,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현실회피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효과 및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 정보획득과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가족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1> 정보획득과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정보획득	.536	.078	.436	6.861***	.191	.186	47.067***
2	정보획득	.510	.075	.415	6.800***	.263	.255	35.435***
	가족지지	-.286	.065	-.269	-4.411***			
3	정보획득	.516	.076	.420	6.809***	.264	.253	23.663***
	가족지지	-.286	.065	-.269	-4.398***			
	정보획득× 가족지지	-.054	.091	-.036	-.592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191로, 정보획득($\beta=.436$,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19.1%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7.06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263으로, 정보획득($\beta=.415$, $p<.001$)와 가족지지($\beta=-.269$,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6.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5.43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64로, 정보획득($\beta=.420$, $p<.001$)와 가족지지($\beta=-.269$, $p<.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정보획득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36$,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정보획득과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0) 정보획득 동기와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2>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친구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2> 정보획득과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정보획득	.536	.078	.436	6.861***	.191	.186	47.067***
2	정보획득	.494	.076	.403	6.548***	.260	.253	35.018***
	친구지지	-.282	.065	-.266	-4.334***			
3	정보획득	.537	.076	.437	7.056***	.285	.275	26.366***
	친구지지	-.265	.064	-.250	-4.115***			
	정보획득× 친구지지	-.222	.084	-.163	-2.639**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91으로, 정보획득($\beta=.436$,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19.1%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7.06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260으로, 정보획득($\beta=.403$, $p<.001$)와 친구지지($\beta=-.266$,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6%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5.01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285로, 정보획득($\beta=.437$, $p<.001$)와 친구지지($\beta=-.250$, $p<.001$), 그리고 정보획득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63$, $p<.01$)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8.5%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6.36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정보획득 동기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정보획득과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3> 정보획득과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중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정보획득	.536	.078	.436	6.861***	.191	.186	47.067***
2	정보획득	.529	.077	.431	6.843***	.212	.204	26.815***
	타인지지	-.129	.055	-.148	-2.346***			
3	정보획득	.523	.078	.426	6.733***	.216	.204	18.166***
	타인지지	-.137	.055	-.157	-2.462*			
	정보획득× 타인지지	-.060	.064	-.060	-.946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91로, 정보획득($\beta=.436$,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19.1%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7.06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212으로, 정보획득($\beta=.431$,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48$,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1.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6.81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216로, 정보획득($\beta=.426$,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57$, $p<.05$)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정보획득과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60$,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정보획득과 중요 타인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2) 오락성과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4>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가족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4> 오락성과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오락성	.389	.074	.350	5.289***	.123	.118	27.972***
2	오락성	.418	.069	.376	6.038***	.232	.224	30.054***
	가족지지	-.353	.066	-.332	-5.321***			
3	오락성	.409	.070	.368	5.876***	.237	.225	20.485***
	가족지지	-.348	.066	-.327	-5.245***			
	오락성× 가족지지	.090	.080	.070	1.125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123로, 오락성($\beta=.350,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12.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7.97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232으로, 오락성($\beta=.376, p<.001$)와 가족지지($\beta=-.332,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3.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0.05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오락성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37로, 오락성($\beta=.368, p<.001$)와 가족지지($\beta=-.327,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오락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70,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오락성과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3) 오락성과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5>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친구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5> 오락성과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오락성	.389	.074	.350	5.289***	.123	.118	27.972***
2	오락성	.442	.069	.397	6.447***	.256	.249	34.286***
	친구지지	-.390	.065	-.369	-5.978***			
3	오락성	.440	.069	.396	6.370***	.257	.245	22.782***
	친구지지	-.388	.066	-.366	-5.874***			
	오락성× 친구지지	.023	.077	.019	.299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23로, 오락성($\beta=.350$,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12.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7.97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256으로, 오락성($\beta=.397$, $p<.001$)와 친구지지($\beta=-.369$,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25.6%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4.28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오락성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257로, 오락성($\beta=.396$, $p<.001$)와 친구지지($\beta=-.366$,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오락성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19$,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오락성과 친구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4) 오락성과 SNS과잉소통과 몰입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6> 오락성과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중속변수 : SNS과잉소통과 몰입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오락성	.389	.074	.350	5.289***	.123	.118	27.972***
2	오락성	.380	.073	.342	5.210***	.144	.135	16.698***
	타인지지	-.126	.057	-.145	-2.210**			
3	오락성	.355	.073	.320	4.774***	.155	.142	12.091***
	타인지지	-.134	.057	-.154	-2.344**			
	오락성× 타인지지	.115	.071	.108	1.615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23로, 오락성($\beta=.350$, $p<.0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12.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7.97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144으로, 오락성($\beta=.342$, $p<.001$)와 중

요 타인지지($\beta=-.145, p<.01$)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변량을 14.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6.69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오락성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155로, 오락성($\beta=.320,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54, p<.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오락성과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08,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잉소통과 몰입과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하여 오락성과 중요 타인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5) 대인관계와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가족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7> 대인관계와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2	ΔR^2	F
1	대인관계	.343	.078	.296	4.381***	.088	.083	19.195***
2	대인관계	.297	.077	.256	3.870***	.148	.140	17.295***
	가족지지	-.292	.078	-.249	-3.760***			
3	대인관계	.295	.077	.254	3.824***	.150	.137	11.616***
	가족지지	-.291	.078	-.248	-3.734***			
	대인관계× 가족지지	.050	.082	.040	.607			

* $p<.05$, ** $p<.01$, ***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088로, 대인관계($\beta=.296$,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8.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9.19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148로, 대인관계($\beta=.256$, $p<.001$)와 가족지지($\beta=-.249$,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4.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7.29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150로, 대인관계($\beta=.254$, $p<.001$)와 가족지지($\beta=-.248$,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40$,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대인관계와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6) 대인관계와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친구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8> 대인관계와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대인관계	.343	.078	.296	4.381***	.088	.083	19.195***
2	대인관계	.267	.076	.231	3.492**	.174	.165	20.907***
	친구지지	-.351	.077	-.301	-4.553***			
3	대인관계	.267	.077	.231	3.492**	.176	.164	14.100***
	친구지지	-.354	.077	-.303	-4.579***			
	대인관계× 친구지지	.058	.077	.049	.758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088로, 대인관계($\beta=.296$,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8.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9.19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174로, 대인관계($\beta=.231$, $p<.01$)와 친구지지($\beta=-.301$,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7.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0.90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176로, 대인관계($\beta=.231$, $p<.01$)와 친구지지($\beta=-.303$,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49$,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대인관계와 친구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7) 대인관계와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9>과 같다. 1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대인관계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대인관계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59> 대인관계와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대인관계	.343	.078	.296	4.381***	.088	.083	19.195***
2	대인관계	.348	.075	.300	4.660***	.174	.166	21.006***
	타인지지	-.283	.062	-.295	-4.572***			
3	대인관계	.348	.075	.301	4.653***	.175	.162	13.955***
	타인지지	-.286	.064	-.298	-4.481***			
	대인관계× 타인지지	-.015	.065	-.015	-.229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088로, 대인관계($\beta=.296$,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8.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9.19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 대인관계 동기와 조절변수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174로, 대인관계($\beta=.300$, $p<.001$)

와 중요 타인지지($\beta = -.295, p < .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7.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1.006($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대인관계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대인관계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175로, 대인관계($\beta = .301, p < .01$)와 중요 타인지지($\beta = -.298, p < .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 = -.015, p > .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대인관계와 중요 타인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8) 현실회피와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0>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가족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0> 현실회피와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2	ΔR^2	F
1	현실회피	.675	.071	.560	9.564***	.314	.310	91.480***
2	현실회피	.628	.071	.521	8.837***	.342	.336	51.744***
	가족지지	-.202	.069	-.173	-2.925**			
3	현실회피	.622	.073	.516	8.543***	.343	.333	34.403***
	가족지지	-.207	.070	-.177	-2.943**			
	현실회피× 가족지지	.033	.083	.024	.398			

* $p < .05$, ** $p < .01$, *** $p < .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314로, 현실회피($\beta=.560$,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31.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1.480($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342로, 현실회피($\beta=.521$, $p<.001$)와 가족지지($\beta=-.173$, $p<.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34.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1.74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343로, 현실회피($\beta=.516$, $p<.001$)와 가족지지($\beta=-.177$, $p<.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현실회피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24$,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현실회피와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9) 현실회피와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친구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1> 현실회피와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현실회피	.675	.071	.560	9.564***	.314	.310	91.480***
2	현실회피	.609	.070	.521	8.692***	.364	.358	57.024***
	친구지지	-.270	.068	-.231	-3.975***			
3	현실회피	.610	.073	.507	8.351***	.364	.355	37.828***
	친구지지	-.269	.070	-.230	-3.839***			
	현실회피× 친구지지	-.006	.082	-.005	-.077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314로, 현실회피($\beta=.560$,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31.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1.480($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364로, 현실회피($\beta=.521$, $p<.001$)와 친구지지($\beta=-.231$, $p<.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36.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7.02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364로, 현실회피($\beta=.507$, $p<.001$)와 친구지지($\beta=-.230$,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현실회피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05$,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현실회피와 친구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0) 현실회피와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현실회피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2>과 같다. 1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현실회피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실회피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현실회피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2> 현실회피와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현실회피	.675	.071	.560	9.564***	.314	.310	91.480***
2	현실회피	.633	.070	.525	9.060***	.352	.345	53.971***
	타인지지	-.190	.056	-.198	-3.407**			
3	현실회피	.637	.071	.529	8.966***	.352	.342	35.864***
	타인지지	-.189	.056	-.197	-3.398**			
	현실회피× 타인지지	-.023	.066	-.020	-.352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현실회피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314로, 현실회피($\beta=.560$,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31.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1.480($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현실회피 동기와 조절변수인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352로, 현실회피($\beta=.525$,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98$, $p<.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35.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1.480($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현실회피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현실회피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352로, 현실회피($\beta=.529$,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197$, $p<.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현실회피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20$,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현실회피와 중요 타인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1) 정보획득과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3>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가족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3> 정보획득과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2	ΔR^2	F
1	정보획득	.488	.089	.360	5.460***	.130	.125	29.812***
2	정보획득	.460	.086	.339	5.331***	.198	.190	24.634***
	가족지지	-.308	.075	-.263	-4.131***			
3	정보획득	.472	.087	.348	5.434***	.204	.191	16.864***
	가족지지	-.307	.075	-.262	-4.122***			
	정보획득× 가족지지	-.117	.104	-.072	-1.123			

* $p<.05$, ** $p<.01$, ***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130로, 정보획득($\beta=360$,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9.81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198로, 정보획득($\beta=.339$, $p<.001$)와 가족지지($\beta=-.263$,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9.8%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4.63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04로, 정보획득($\beta=.348$, $p<.001$)와 가족지지($\beta=-.262$,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정보획득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72$,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현실회피와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2) 정보획득 동기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4>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친구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4> 정보획득과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정보획득	.488	.089	.360	5.460***	.130	.125	29.812***
2	정보획득	.434	.085	.321	5.094***	.224	.216	28.748***
	친구지지	-.362	.073	-.310	-4.922***			
3	정보획득	.476	.086	.351	5.508***	.244	.232	21.244***
	친구지지	-.345	.073	-.296	-4.724***			
	정보획득× 친구지지	-.215	.095	-.143	-2.250*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30로, 정보획득($\beta=.360$,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9.81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224으로, 정보획득($\beta=.321$, $p<.001$)와 친구지지($\beta=-.310$,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22.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8.74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244로, 정보획득($\beta=.351$, $p<.001$)와 친구지지($\beta=-.296$, $p<.001$), 그리고 대인관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43$, $p<.05$)은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24.4%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1.24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정보획득 동기와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정보획득과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정보획득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5>과 같다. 1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정보획득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획득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정보획득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5> 정보획득과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정보획득	.488	.089	.360	5.460***	.130	.125	29.812***
2	정보획득	.474	.086	.350	5.532***	.206	.198	25.861***
	타인지지	-.266	.061	-.277	-4.382***			
3	정보획득	.461	.085	.340	5.388***	.218	.206	18.398***
	타인지지	-.282	.061	-.294	-4.614***			
	정보획득× 타인지지	-.121	.070	-.110	-1.721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정보획득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30로, 정보획득($\beta=360$,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3%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9.81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 정보획득 동기와 조절변수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206로, 정보획득($\beta=.350$, $p<.001$)

와 중요 타인지지($\beta = -.277, p < .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20.6%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5.861($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정보획득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정보획득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018로, 정보획득($\beta = .340, p < .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 = -.294, p < .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정보획득과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 = .110, p > .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현실회피와 중요 타인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4) 오락성과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6>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가족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가족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6> 오락성과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2	ΔR^2	F
1	오락성	.461	.080	.377	5.749***	.142	.138	33.045***
2	오락성	.492	.076	.402	6.499***	.244	.237	32.174***
	가족지지	-.377	.072	-.321	-5.197***			
3	오락성	.481	.076	.393	6.323***	.251	.239	22.065***
	가족지지	-.371	.072	-.316	-5.116***			
	오락성×가족지지	.112	.088	.079	1.281			

* $p < .05$, ** $p < .01$, *** $p < .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2 은 .142로, 오락성($\beta=377$,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4.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3.04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가족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2 은 .244로, 오락성($\beta=.402$, $p<.001$)와 가족지지($\beta=-.321$,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24.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2.17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가족지지, 오락성 동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51로, 오락성($\beta=.393$, $p<.001$)와 가족지지($\beta=-.316$,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오락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79$,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오락성과 가족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5) 오락성과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7>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친구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친구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7> 오락성과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오락성	.461	.080	.377	5.749***	.142	.138	33.045***
2	오락성	.525	.073	.428	7.182***	.304	.297	43.358***
	친구지지	-.473	.070	-.405	-6.797***			
3	오락성	.527	.074	.430	7.159***	.304	.293	28.802***
	친구지지	-.476	.070	-.408	-6.762***			
	오락성× 친구지지	-.024	.082	-.018	-.295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42로, 오락성($\beta=.377$,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4.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3.04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친구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304로, 오락성($\beta=.428$, $p<.001$)와 친구지지($\beta=-.405$,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30.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3.35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친구지지, 오락성 동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²은 .304로, 오락성($\beta=.430$, $p<.001$)와 친구지지($\beta=-.408$,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오락성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18$,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오락성과 친구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6) 오락성과 SNS과도한 시간소비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오락성 동기가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8>과 같다. 1단계에서 오락성 동기를 투입, 2단계에서 오락성 동기, 중요 타인지지를 투입,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락성 동기, 중요 타인지지 및 오락성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하였다.

<표 68> 오락성과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관계에서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모형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p	R ²	ΔR^2	F
1	오락성	.461	.080	.377	5.749***	.142	.138	33.045***
2	오락성	.443	.077	.362	5.747***	.215	.207	27.185***
	타인지지	-.259	.060	-.270	-4.295***			
3	오락성	.435	.079	.355	5.508***	.215	.204	18.129***
	타인지지	-.262	.061	-.273	-4.311***			
	오락성× 타인지지	.036	.076	.476	.476			

*p<.05, **p<.01, ***p<.001

회귀분석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만드는 평균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값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오락성 동기를 투입한 1단계의 R²은 .142로, 오락성($\beta=.377$,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14.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3.04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와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가 투입된 2단계의 R²은 .215로, 오락성($\beta=.362$,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270$, $p<.001$)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의 변량을 21.5%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7.18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오락성 동기, 조절변인 중요 타인지지, 오락성 동기와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R^2 은 .215로, 오락성($\beta=.355$, $p<.001$)와 중요 타인지지($\beta=-.273$, $p<.001$) 각각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오락성과 중요 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beta=.031$, $p>.05$)은 종속변수인 SNS과도한 시간소비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하여 오락성과 중요 타인지지의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중요 타인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7. 가설검증 요약

1)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검증

연구가설에 2-1 ~ 2-12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69>과 같다.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대인관계, 현실회피 동기이며, 정보획득과 오락성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대인관계, 현실회피, 오락성 동기이며, 정보획득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과도한 시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현실회피, 오락성 동기이며, 대인관계와 정보획득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표 69>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검증

구분	내용		지지 여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설 2-1	대인관계	$\beta = .172^{**}$	SNS집착 및 금단증상
가설 2-2	현실회피	$\beta = .543^{***}$	
가설 2-3	정보획득	$\beta = .033$	
가설 2-4	오락성	$\beta = .029$	
가설 2-5	대인관계	$\beta = .295^{***}$	SNS과잉소통 및 몰입
가설 2-6	현실회피	$\beta = .403^{***}$	
가설 2-7	정보획득	$\beta = .037$	
가설 2-8	오락성	$\beta = .219^{***}$	
가설 2-9	대인관계	$\beta = .031$	과도한 시간소비
가설 2-10	현실회피	$\beta = .468^{***}$	
가설 2-11	정보획득	$\beta = .019$	
가설 2-12	오락성	$\beta = .243^{***}$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검증

연구가설 3-1 ~ 3-9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70>과 같다.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는 친구지지이며, 가족지지와 중요 타인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는 친구지지이며, 가족지지와 중요 타인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과도한 시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는 친구지지이며, 가족지지와 중요 타인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표 70>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검증

구분	내용		지지 여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설 3-1	대인관계	$\beta = -.100$	기각
가설 3-2	현실회피	$\beta = -.421^{***}$	SNS집착 및 금단증상
		$\beta = -.017$	
가설 3-3	오락성		기각
가설 3-4	가족지지	$\beta = -.182$	기각
가설 3-5	친구지지	$\beta = -.242^*$	SNS과잉소통 및 몰입
		$\beta = -.081$	
가설 3-6	중요 타인지지		기각
가설 3-7	가족지지	$\beta = -.063$	기각
가설 3-8	친구지지	$\beta = -.241^*$	과도한 시간소비
		$\beta = -.111$	
가설 3-9	중요 타인지지		기각

* $p < .05$, ** $p < .01$, *** $p < .001$

3) 주요변인 간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연구가설 4-1 ~ 4-12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71>과 같다.

대인관계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지는 가족지지와 중요 타인지지이며, 친구지지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현실회피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지는 친구지지와 중요 타인지지이며, 가족지지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정보획득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지는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이며, 가족지지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오락성 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지는 가족지지이며, 친구지지와 중요 타인지지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표 71> SNS 이용동기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설검증

구분	내용		지지 여부
	조절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가설 4-1	가족지지	대인관계	지지
가설 4-2	친구지지	↓	기각
가설 4-3	중요 타인지지		SNS집착 및 금단증상
가설 4-4	가족지지	현실회피	기각
가설 4-5	친구지지	↓	지지
가설 4-6	중요 타인지지		SNS집착 및 금단증상
가설 4-7	가족지지	정보획득	기각
가설 4-8	친구지지	↓	지지
가설 4-9	중요 타인지지		SNS집착 및 금단증상
가설 4-10	가족지지	오락성	지지
가설 4-11	친구지지	↓	기각
가설 4-12	중요 타인지지		SNS집착 및 금단증상

*p<.05, **p<.01, ***p<.001

연구가설 4-13 ~ 4-24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72>과 같다.

대인관계, 현실회피, 오락성 동기가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정보획득 동기가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지는 친구지지이며, 가족지지와 중요 타인지지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표 72> SNS 이용동기가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설검증

구분	내용		지지 여부	
	조절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가설 4-13	가족지지	대인관계	기각	
가설 4-14	친구지지	↓	기각	
가설 4-15	중요 타인지지		SNS과잉소통 및 몰입	기각
가설 4-16	가족지지		현실회피	기각
가설 4-17	친구지지	↓	기각	
가설 4-18	중요 타인지지		SNS과잉소통 및 몰입	기각
가설 4-19	가족지지		정보획득	기각
가설 4-20	친구지지	↓	지지	
가설 4-21	중요 타인지지		SNS과잉소통 및 몰입	기각
가설 4-22	가족지지		오락성	기각
가설 4-23	친구지지	↓	기각	
가설 4-24	중요 타인지지		SNS과잉소통 및 몰입	기각

*p<.05, **p<.01, ***p<.001

연구가설 4-25 ~ 4-36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73>과 같다.

대인관계, 현실회피, 오락성 동기가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정보획득 동기가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지는 친구지지이며, 가족지지와 중요 타인지지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표 73> SNS 이용동기가 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설검증

구분	내용		지지 여부
	조절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가설 4-25	가족지지	대인관계	기각
가설 4-26	친구지지	대인관계	기각
가설 4-27	중요 타인지지	대인관계	기각
가설 4-28	가족지지	현실회피	기각
가설 4-29	친구지지	현실회피	기각
가설 4-30	중요 타인지지	현실회피	기각
가설 4-31	가족지지	정보획득	기각
가설 4-32	친구지지	정보획득	지지
가설 4-33	중요 타인지지	정보획득	기각
가설 4-34	가족지지	오락성	기각
가설 4-35	친구지지	오락성	기각
가설 4-36	중요 타인지지	오락성	기각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22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141부 및 지면 설문조사 61부 총 202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독립변수에 SNS 이용동기, 종속변수에 SNS중독경향성, 조절변수에 사회적 지지, 통제변수로 성별, 학년, 대학유형, 학과계열을 선정하고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차이분석(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조절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주요 요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SNS 이용동기,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검증을 위해 주요변수의 하위요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하위요인 간에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 중 현실회피 동기에서 학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보획득 동기는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오락성 동기는 학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서 학년과 대학유형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SNS과잉소통과 몰입은 학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시간소비는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모두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둘째, SNS 이용동기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관계 동기는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 중 SNS집착 및 금단증상, SNS과잉소통 및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 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희복 외, 2014; 홍신영, 2015; 노영, 2016; 성요안나·현명호, 2016; 조윤희, 2016; 한기쁨, 2018; 박경아, 2019; 안지은 외, 2020)와 일치한다. 현실회피 동기는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실회피 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유현숙, 2013; 이희복 외, 2014; 조윤희, 2016; 이귀옥·박조원, 2018; 박경아, 2019)와 일치한다. 정보획득 동기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나왔다. 이는 정보획득 동기는 SNS중독경향성과 영향이 없다는 선행연구(이희복 외, 2014; 노영, 2016; 유나 외, 2016; 이귀옥·박조원, 2018; 조진행, 2018; 한기쁨, 2018; 문정환, 2020; 안지은, 2020)와는 일치하며, 반대의 결과가 나온 선행연구(박웅기, 2013; 유현숙, 2013; 홍신영, 2015; 노미진, 2016; 성요안나·현명호, 2016; 조윤희, 2016)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락성 동기는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인 SNS과잉소통 및 몰입, 과도한 시간소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오락성 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희복 외, 2014; 홍신영, 2015; 노미진, 2016; 노영, 2016; 성요안나·현명호, 2016; 유나 외, 2016; 조윤희, 2016; 이귀옥·박조원, 2018; 조진행, 2018; 한기쁨, 2018; 박경아, 2019; 문정환, 2020; 안지은, 2020)와 일치했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 중 상반적인 결과가 많은 정보획득 동기를 제외한 3가지 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SNS 이용동기 정도에 따라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학생에게 성적저하, 업무 효율성 저하, 흥미실추, 대화단절, 건강이상, 수면부족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SNS중독경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상담을 할 경우 어떠한 동기라 할지라도 SNS 이용동기의 정도가 높으면 SNS중독경

향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SNS중독예방하며 건강하게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지지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나왔다. 이는 가족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장지희, 2015; 홍구표 2016; 변해림, 2017; 김은애, 2018)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며, 부모지지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나현(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친구지지는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 모두와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홍구표, 2016; 김나현, 2018; 김은애, 2018)와 일치한다. 타인지지의 경우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나왔다. 이는 타인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장지희, 2015; 변해림, 2017)와 일치한다. 위 결과를 정리해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만이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의 친구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친구지지가 안정적인 대학생은 SNS중독경향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대학생이 건강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의 하위요인 별로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인관계 동기에서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가족지지, 중요 타인지지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정도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실회피 동기에서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정도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보획득 동기에서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친구지지, 중요 타인지지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정도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오락성 동기에서 SNS집착 및 금단증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가족지지가

SNS집착 및 금단증상의 정도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보획득 동기에서 SNS과잉소통과 몰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친구지지가 SNS과잉소통과 몰입의 정도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획득 동기에서 과도한 시간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친구지지가 과도한 시간소비의 정도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에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SNS 이용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SNS 이용동기의 정도가 높으면 SNS중독 경향성도 높아지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SNS 이용동기가 증가할수록 SNS중독경향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자기통제력 또한 높아지고,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화되어 중독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 구용근(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 외 SNS중독경향성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남옥수, 2016; 이선민, 2016; 홍구표, 2016; 김종운·이수년, 2018; 배찬욱, 2020)와 일치한다.

2. 연구의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주요 결과에 따른 연구자의 시사점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이용동기,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하위요인 별 각 변수의 결과들이 선행연구들과 모두 일치함에 따라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이 정적관계에 있고, 사회적 지지와 SNS중독경향성이 부적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가 SNS중독경향성 하위요인 3가지 모두에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사회적 지지 중에서 친구지지가 대학생의 SNS중독문제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 이는 대학 내에서는 친구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 친구 및 중요 타인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가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특정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9가지로 특정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SNS중독을 예방함에 있어 가족, 친구, 중요 타인(선배, 교수, 주변 어른 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 서로 지지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대학 내 또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및 대학 내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대학생들이 SNS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예방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의 한계 및 표본의 부족이다. 대상 자체를 일반 대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조사하였기에, 대부분 척도의 결과에서 SNS중독경향성이 낮게 나타났고, 표본이 200개정도로 제주도내 대학생 인구대비 수량이 너무 적어 제주도내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숫자를 늘리고, SNS중독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표본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만을 의도적으로 표집 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이 말한 가장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이 많은 10대 청소년을 포함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좀 더 근본적으로 SNS중독 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관찰법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욱. 2013. “대학생의 SNS중독성향과 사회적 지지, 외로움, 건강지각, 대인관계의 관계와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레크리에이션 적용”. 『한국체육과학회지』 22(1): 121-133.
- 고민정.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의 관계 : 외로움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오병·문예성·김민용. 2010. “블로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2(4): 165-184.
- 권지영. 2020.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욕구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 2013. “자기노출과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SNS 이용형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현. 2018.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아. 2007. “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사회학회』 (11): 25-59.
- 김명진. 2019. “자기애와 SNS중독의 관계 :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향. 2010. “성중독이 있는 조울증 청년에 대한 성경적 상담”.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민. 1988. “사회조직망 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곤·강민혁·김지원·장준혁·오재섭. 2013.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목뼈 및 허리뼈의 굽힘각도와 목뼈의 재현오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 10-17.

- 김영미.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수로-”.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예지. 2018. “SNS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 20대 성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 20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페이스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 71-105.
- 김은애. 2018.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1.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발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손영우. 2012.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이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지』 8(1): 15-20.
- 김진숙·문현주·최은. 2019.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10(1): 241-254.
- 김현주. 2019. “커피전문점 이용동기가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커피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내가영. 2010. “모바일 SNS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와 만족감에 대한 연구: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미진·장성희. 2016.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경영과 정보연구』 35(4): 99-122.
- 노영. 2016. “SNS 이용동기가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7(3): 301-320.
- 문정환. 2020.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 SNS 과다사용, 삶의 만족도 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아. 2019.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순·조명휘. 2004. “인터넷의 웹블로그 이용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48(5): 270-294.
- 박나리. 2015. “자존감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전남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현. 2008.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기. 2013.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13(4): 305-342.
- 박지영. 2014. “페이스북 이용동기에 따른 상호작용성이 패션제품의 구전의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우·김덕중. 2014.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와 신뢰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10): 207-21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진웅·권명진. 2018. “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행복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4): 453-460.
- 박헌일. 2000.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간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연구”. 『계명연구논총』 18(1): 5-23.
- 배나령·강정석. 2019. “사회적 자기효능감, SNS 이용정도 및 우울의 관계: SNS 이용목적의 조절효과”.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10): 577-586.
- 배찬욱. 2020.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선영·이선재. 1999. “고교생의 가치성향과 의복 행동 및 의복구매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47, 47-60.
- 백현기·윤지원.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심리적 마음상태와의 관계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2(7): 389-400.
- 변해림. 2017. “대인불안성향, 지각된 사회적지지, SNS 중독 간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거. 2013. “페이스북(Facebook)이용 중독이 대학생의 사회성 및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조성현. 2013. “SNS중독경향성 관련 요인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1): 239-250.

- 서인균·이연실. 2016. “청소년기 스마트폰 이용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재활심리연구』 23(4): 857-875.
- 성요안나·현명호. 2016.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대한스트레스학회』 24(4): 257-263.
- 성중화. 2012. “모바일 SNS사용자의 이용동기가 이용 몰입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진성. 2016. “한국과 일본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가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스마트쉽센터. 2005.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 K-척도 성인용[On-line]. <http://www.iapc.or.kr>.
- 신미경. 2015.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심리사회적 변인과 온라인 상호작용 선호 경향성 및 SNS 이용동기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성만·김재영·라영안. 2016. “한국판 대학생용 Bergen 페이스북 중독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773-790.
- 신연섭. 2012.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공격성이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선·윤석희. 2017. “청소년의 SNS중독과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225-234.
- 심미경. 1987.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학회지』 17(1): 79-87.
- 심홍진·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4(2): 192-234.
- 안지은·우도현·성현아·배성만. 2020. “SNS 이용동기와 자기조절이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1): 227-243.
- 엄수현·최서연·박동현. 2013. “스마트폰 사용량과 근골격계질환 관련 자각증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5(2): 113-120.
- 여성가족부. 2019. 『2019 청소년 통계』 .
- 오성희. 2010.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석. 2010.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 동기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윤경. 2012.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은혜 · 이정화 · 이정애. 2019. “SNS의 이용동기가 SNS의 사회적 자본과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138-149.
- 우공선. 2011.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 충족과 중독 연구: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자. 2017. “성인의 내현적 자기에 및 사회불안과 SNS중독경향성간의 관계 : 대인관계문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나 · 김승윤 · 이상민. 2016.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한국교육치료학회』 8(3): 337-350.
- 유현숙. 2013. “사회불안 및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SNS 중독과 페이스북 이용 따른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 박완경. 201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SNS 중독성향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42(3): 208-236.
- 윤소연. 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성격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1. “노인과 사회적 지지”.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23: 303-346.
- 이귀옥 · 박조원. 2018.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회』 20(3): 301-326.
- 이도형 · 손은정. 2013. “사회적 기술, 사회적 지지 및 외로움과 문제성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상호작용 선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105-3123.
- 이상호. 2013.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중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연구 : 한국 SNS 중독지수(KSAI) 제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11(1): 255-265.

- 이선민. 2016. “중학생의 불안정애착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노출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2019. “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이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신영. 2015. “대학생의 실제-이상적 자기불일치가 열등감을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2010.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상담』 28: 45-61.
- 이영미. 2016.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관련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2): 561-568.
- 이용희. 2016.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남녀집단 비교”.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점수 · 이영곤. 20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성이 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5(3), 49-65.
- 이정권 · 최영. 2015.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 『한국언론학보 논문집』 59(1): 115-148.
- 이지영 · 신재권 · 이상우. 2015. “카카오스토리 이용패턴과 이용동기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 379-387.
- 이한우 · 송형철. 2015.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6(2): 35-59.
- 이현미. 2013.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간의 관계분석”.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송. 2008.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1: 104-161.
- 이현주 · 이주원 · 이준영. 2015.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26(1): 345-367.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심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복 · 김대환 · 최지윤 · 신명희. 2014. “청소년의 SNS 이용특성과 SNS 중독경

- 향성 연구 - 경기도와 강원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 『GRI연구논총』 16(1): 365-392.
- 임민희. 2014.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 및 지각된 상호작용과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차”.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웅. 201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자기낙담의 매개효과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희. 2015. “중학생의 스포츠클럽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인. 2012. “대구지역 고등학생의 트위터 이용동기와 만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2016.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인. 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김종남. 2014. “ 대학생용 SNS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3): 587-603.
- 정은정·이동형·김원희. 2014. “고등학생의 성격 5요인과 SNS 이용동기 간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4(1): 17-32.
- 정희진. 2014. “우울과 불안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근·양돈규.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1): 91-111.
- 조아미·방희정. 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 조영윤. 2016. “사회적 지지가 빈곤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윤희. 2016.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준한. 2010. “청소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학교의 목표 및 사회적 지지

- 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진행. 2018. “청소년의 내현전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령. 2015. “애착외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도피이론(Escape Theory)’ 모형을 중심으로”.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도순. 2012. “SNS 이용자의 이용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애·박성희. 2020. “혼종 모형을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 분석”. 『한국아동간호학회』 26(2): 222-237.
- 최영·박성현. 2011.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41-276.
- 최정화. 2012. “SNS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7: 369-408.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0. 『2010년 인터넷이슈 기획조사』 .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19년 인터넷이용이용실태조사』 .
- 한규현. 2014.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기쁨. 2018.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남식·어주경. 2012. “중학생의 대인관계 성향, 또래 괴롭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생애학회지』 2(1): 71-84.
- 홍구표. 2016.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구표·전혜성. 2017.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1): 64-67.
- 홍수정. 2014. “SNS 이용동기와 네트워크 유형이 온라인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신영. 2015. “대학생의 SNS 이용특성과 자아정체감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은택. 2020.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현희. 2015. “사회적 지지와 중학생의 학교적응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특성 메타기분의 매개효과”.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경혜 · 유양숙 · 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 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65-375.
- 황룡 · 권혜정 · 송영화 · 이경희 · 김성원 · 안호정 · 김영경 · 염현진 · 이건희 · 주성은. 2013. “머리척추각(cva)이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근골격계통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리듬운동학회지』 6(2): 39-44.
- Autonucci, Toni C. 1985.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Support, and Social Bahavior. In Robert H. Binstock and Ethel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94-158.
- Barker, V. 2009.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2(2): 209~213
- Boyd, D. M. and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210-230.
- Buhrmester, D. and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and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obow, E. F., and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Furman, W. and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Retrieved November,24, 2004.
- Greenfield, D. N. 2000. The net effect: Internet addiction and compulsive Internet use. Retrieved on May, 29, 2008.
- Griffiths, M. 1998.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8-250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02-218.
- Jiang, X. 2013.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ial sources of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School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3): 1073-1086.
- Katz, E., Jay G. Blumler; Michael Gurevitch. 1973. Uses and Gratifications Research.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7(4): 509-523.
- Kranzler, H. R. and Li, T. 2008. "What is addiction?," *Alcohol Research and Health*, 31(2): 93-95.
- Lee, S. J. 2013.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traits, gratification, and social networking sites addiction: Focusing on Facebook us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1(4): 17-39.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Papacharissi, Z., and Mendelson, A. 2011. Toward a new(er) sociability: Uses, gratifications and social capital on Facebook. In S. Papathanassopoulos

- (Ed.), Media perspectives for the 21st century (pp. 212~230). New York, NY: Routledge.
- Pierce, G. R., Sarason, B. R., and Sarason, I. G. (Eds.). 1996. The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 Soto, R. L., Almarza, C. B., and Wilkinson, K. T. 2016. Young Hispanics' Motivations to Use Smartphones: A Three-Country Comparative Study. *Comunicación y Sociedad*, 30(4): 13-26.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Diagnostic Questionnaire (IADQ). [On-line]<http://netaddiction.com/>.
- Young, K. S. 2004, "Internet addiction: A new clinical phenomenon and its consequen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 402-415.
- Zizi Papacharissi and Alan M. Rubin. 2000.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Vol44, pp.175-196, 2000.

<Abstract>

The Effects of SNS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on Jeju Island on Addiction Tendency :
Focus on the Ease of Social Support

Jeong, Seung Ro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Kwan 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y sub-factors of each variable in the influence of SNS use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SNS addiction tendency. For the study, Internet questionnaires and paper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a total of 202 students were analyzed for college studen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research, the motivation for using SNS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tendency for SNS addic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Here, social support was set as a control variable.

SPSS 18.0 was used as a program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t-test, one-way varianc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t-test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sub-factors of the main variables, and the one-way

batch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ade, the college type for information acquisition, and the type of entertainment in the grade of reality avoidance, which is the sub-factor of the motivation for SNS use. SNS attachment and withdrawal symptoms, which are sub-factors of SNS addiction tendenc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grade and university type, and SNS overcommunication and immersion and excessive time consump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grade. Lastly, both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which ar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lege types.

Secon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 of SNS use motivation sub-factor on SNS addiction tendency sub-factor are as follows. interpersonal motives had a positive effect on SNS attachment and withdrawal symptoms, SNS overcommunication, and immersion. The motivation for avoiding reality had a positive impact with all of the sub-factors of SNS addiction propensity. Motivation for information acquisi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SNS addiction tendency, and finally, entertainment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NS over-communication, immersion, and excessive time consumption.

Thir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sub-factors on SNS addiction propensity sub-factor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revealed that family support and important other perception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ll SNS addiction propensity sub-factors. Friends support showed that all three sub-factors of SNS addiction tendency had negative effects.

Fourth,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motivation and SNS addiction tendency,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motivation and SNS addiction tendency. As a result of analyzing by sub-factors to find out the detailed results, nine significant control effects were verified.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NS use motivation on SNS addiction tendency, and grasped the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so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uch as education and counseling to prevent SNS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is possible. It is meaningful to sugges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rogram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for families and communities.

However, since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entire sample group, it was insufficient to be used for generalization. In addition, if the number of sample groups is increased to conduct research including teenager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data necessary to prevent SNS addiction. Lastly, social desirability is concern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various measurement methods such as interviews and observation methods in subsequent studies.

**Key Words: Social Support, Motivation To Use SNS,
SNS Addiction Tendency, College Students**

(부록)

설 문 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은,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 사용됩니다.

설문지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본 연구자는 설문 응답자의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 보장을 약속합니다.

설문지의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이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조사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아래 연구담당자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성심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비밀유지(통계법)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타 목적 이용 시 연구자는 통계법 제 2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2020년 5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정 승록
지도교수 고 관우

연구 참여 동의서

- 본인은 설문조사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들었고,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 본인은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철회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이 설문지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연구 목적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필요한 귀하의 설문 응답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오른쪽 '□'칸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

1. 자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자신의 현재 학년은 무엇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이상
3.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대학
4. 현재 재학중인 학과의 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연과학계열 ② 인문사회계열 ③ 예체능계열

[SNS 사용에 관한 설문]

※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글, 이미지, 영상 등)를 열람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포함됩니다.

1.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SNS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하나만 골라주세요)
① 카카오톡 ② 페이스북 ③ 인스타그램 ④ 네이버 밴드
⑤ 트위터 ⑥ 유튜브 ⑦ 기타()
2. 하루에 SNS를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3시간 미만 ③ 3시간~5시간 미만
④ 5시간 이상
3. SNS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1순위, 2순위만 선택)
1순위 목적 : () 2순위 목적 : ()
① 친구/지인과 연락 및 교류 ② 뉴스/이슈 등 정보 획득
③ 취미/관심사 공유 ④ 사진/동영상 등 일상 기록
⑥ 유명인(연예인 등)의 게시물 열람/교류 ⑦ 새로운 사람과 친목 도모

⑧ 기타 ()

4. 귀하의 SNS 인맥 중,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고 주로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있는 인맥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없다 ② 소수 ③ 반 정도 ④ 반 이상 ⑤ 대부분

5. 귀하가 SNS에 입력한 프로필(개인정보 등) 항목들은 "대부분" 어떤 수준으로 공개되어 있나요?

- ① 대부분 비공개
- ② 대부분 모든 친구에게만 공개
- ③ 대부분 모든 친구와 나의 네트워크에게만 공개
- ④ 모두에게 공개

6. 귀하께서 SNS를 통해 1주일간 작성하는 포스팅의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0회 ② 1~5회 ③ 6~10회 ④ 11~15회 ⑤ 15회 이상

7. 귀하께서 SNS를 통해 1주일간 어느 정도 댓글을 달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달지 않는다 ② 가끔 다는 편이다 ③ 대체로 다는 편이다
- ④ 꼭 다는 편이다

8. 귀하께서 SNS에 댓글을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혀달지 않는다
- ② 게시글이 마음에 들어서
- ③ 게시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④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⑤ 관심을 받기 위해서
- ⑥ 기타()

9. 귀하께서 SNS를 이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 ① 데스크탑 ② 노트북 ③ 스마트폰 ④ 태블릿 ⑤ 기타()

<부록 1> SNS 이용동기 설문지

I.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혼자 있는 시간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	2	3	4	5
2	누군가에게 자신을 지지받기 위해서	1	2	3	4	5
3	새로운 사람을 알기 위해서	1	2	3	4	5
4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1	2	3	4	5
5	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끊고, 하기 편해서	1	2	3	4	5
6	학교에서의 긴장감이나 고민을 잠시 잊을 수 있어서	1	2	3	4	5
7	남는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유용해서	1	2	3	4	5
8	인맥을 형성할 수 있어서	1	2	3	4	5
9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기 위해서	1	2	3	4	5
10	SNS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므로	1	2	3	4	5
11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1	2	3	4	5
12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어서	1	2	3	4	5
13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1	2	3	4	5
14	이성 친구를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1	2	3	4	5
15	우울한 기분을 바꾸고 싶어서	1	2	3	4	5
16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	1	2	3	4	5
17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1	2	3	4	5
18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잊을 수 있어서	1	2	3	4	5
19	친구가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 수 있어서	1	2	3	4	5
20	진학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1	2	3	4	5
21	원하는 아바타로 나를 포장할 수 있어서	1	2	3	4	5

<부록 2> SNS중독경향성 설문지

I.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SNS가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1	2	3	4	5
2	SNS에서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1	2	3	4	5
3	항상 SNS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4	SNS를 일단 시작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1	2	3	4	5
5	SNS 사용시간을 줄이기 위해 늘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5
6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1	2	3	4	5
7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가족관계, 인간관계나 학업이 위협받거나 위험에 처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8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SNS를 사용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5
10	SNS로 인해 다른 활동이나 TV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다.	1	2	3	4	5
11	지나치게 SNS에 몰두해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12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면 SNS부터 확인한다.	1	2	3	4	5
13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SNS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에게 SNS를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1	2	3	4	5
15	SNS를 한 가지 종류만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실 새 없이 소통한다.	1	2	3	4	5
16	SNS때문에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	1	2	3	4	5
17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뿌듯하고 행복하다.	1	2	3	4	5
18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SNS를 이용한다.	1	2	3	4	5
19	SNS에 지쳐 탈퇴하거나 계정을 없앴지만 다시사용한다.	1	2	3	4	5
20	SNS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1	2	3	4	5

<부록 3> 사회적 지지 설문지

I.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자신의 보호자를 생각하여 응답하여주시면 됩니다.)

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가족이나 친구 제외)이 있다	1	2	3	4	5
2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가족이나 친구제외)이 있다.	1	2	3	4	5
3	나의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한다.	1	2	3	4	5
4	가족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1	2	3	4	5
5	나를 위로해줄 사람(가족이나 친구제외)이 있다.	1	2	3	4	5
6	내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한다.	1	2	3	4	5
7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대화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10	내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가족이나 친구 제외)이 있다.	1	2	3	4	5
11	내 가족은 내가 결정을 내리도록 기꺼이 도와준다.	1	2	3	4	5
12	나는 내 친구들과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1	2	3	4	5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